

제주대신문

타국립대 대부분 오전 8시·오후 7시 운영해

생협 측 “적자 운영으로 연장 어렵다” 난색

학생회관 백두관 식당의 운영시간이 학생들의 수업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온 가운데 운영시간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학생회관 식당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조식과 석식이다. 조식의 경우 오전 8시 30분에 시작돼 10시에 배식이 종료된다. 석식의 경우 오후 4시에 시작돼 6시 30분에 배식이 종료된다. 1교시 수업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오전 8시 30분에 식사를 하면 수업에 늦을 수 있다. 반대로 수업이 늦게 끝나는 학생들은 배식 시간이 종료돼 석식을 먹지 못할 수 있다.

타 국립대의 경우 우리 대학과는 운영시간이 다르다. △서울대 학생회관 식당은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서울시립대 학생회관 식당은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전북대 학생식당은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전주경상대 중앙2식당은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강원대 학생식당도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한국과학기술훈 장학식당은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진주경상대의 경우 학생들의 요구에 식당 운영시간이 변경됐다. 경상대 생협 관계자는 “본교의 경우 배식시간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변경됐다”며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식사 시간을 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두현(야간경영학과 3)씨는 “기독교 동아리 활동으로 학교에 아침 일찍 오는 편”이라며 “시간이 잘 맞지 않아 1교시가 없는 경우에만 조식을 먹을 수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주영(언론홍보학과 3)씨는 “수업이 늦게 끝나는 경우 학생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조금 번거롭더라도 운영시간을 늘리다면 많은 학생들이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회관 식당을 운영하는 생협 측에서는 운영시간을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우화 사무국장은 “학생회관 식당을 이용하는 학생 수는 줄어가는 추세”라며 “조식의 경우 최대 50여명이



현재 백두관 식당의 운영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수업시간이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6시에 끝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백두관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에 벅다하다.

석식은 최대 250여명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운영시간으로도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며 “운영시간을 늘릴 경우 인건비와 관리비가 증가하는 만큼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측에서의 재정적 지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운영시간을 늘리기 보다는 학생들에게 다른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에 개설한 분식점이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침에 학생들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분식점에서 만들어 팔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다른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본부 측에서는 재정적 지원에 관해서 난색을 표했다. 홍인기 재정과장은 “현재도 생협에 학생회관 임대료 면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운영시간을 늘리고자 재정적 지원을 하려면 학생 등록금에서 일부 지원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서 힘들다”고 말했다.

부찬우 기자

학생자치기구 17일부터 출범식

19일 오후 6시 '진짜' 총학생회 출범

20일 '당.신.의' 동아리연합회 출범

학생자치기구 출범식이 지난 17일 우선 순위 총대의원회의 출범식을 시작으로 20일 동아리연합회 출범식까지 연이어 열린다.

관련기사 5면
지난 17일 학생회관서 열린 총대의원회 출범식은 △우선순위 인사 및 공연 △우선 이랑 즉석 폴라로이드 찍기 △팔찌 만들기 △열쇠고리 만들기 △경품 추첨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어 오후 6시부터 학생회관 로비에서는 한 시간 동안 출범식 공식행사가 열렸다. 이날 출범식은 고명찬(수학과 4) 총대의원회 의장, 고현우(수산생명의학전공 4) 부의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고사 △고윤희 학생처장 축사 △총대의원회 간부 인사 △각 단과대학 회장인사 등이 이어졌다.

고 의장은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일만 아라학우들에게 드디어 인사를 드린다”며 “작은 두려움도 있지만 함께우선순위를 이끌어 나갈 식구들이 있어 기대감이 더 크다”며 출범 인사를 전했다. 이어 그는 “총대의원회에 이어 많은 학생자치기구들이 출범식을 앞두고 있다”면서 “학우들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8일에는 학생회관 일대에서 ‘여기부터’ 총여학생회(회장 정승원 환경공학부 4) 출범식이 열렸다. 동아리연합회 출범식에는 △동아리 홍보 △동아리 공연 △각 동아리 홍보 부스를 통한 이벤트 △출범식 고사 등이 준비됐다. 각 단과대학의 출범식도 단과대학 학생회 차원으로 진행된다. 강수빈 기자



17일 학생회관 1층 로비에서 총대의원회(의장 고명찬) 출범식이 열렸다.

코파우치, 미스트 만들기 등의 행사가 마련됐다. 오후 6시부터는 고사를 치른 뒤 공식적인 출범식이 이어졌다.

19일에는 ‘진짜’ 총학생회(회장 고평표 경영학과 4) 출범식이 열렸다. 총학생회 출범식에는 △아침점문인사 및 이벤트 게임(학교 정문 및 한라터 일대·오전 8시 30분~9시) △즉석 참여 게임(한라터 무대·오후 1시~1시 30분) △단대별 장기자랑(한라터·오후 2시 10분~4시 30분) △출범식 고사(학생회관 1층·오후 6시부터)가 진행됐다.

또 오는 20일에는 ‘당.신.의’ 동아리연합회(회장 고두현 생활환경복지학부 4) 출범식이 열린다. 동아리연합회 출범식에는 △동아리 홍보 △동아리 공연 △각 동아리 홍보 부스를 통한 이벤트 △출범식 고사 등이 준비됐다. 각 단과대학의 출범식도 단과대학 학생회 차원으로 진행된다. 강수빈 기자

미취업 졸업생 취업에 발 벗고 나선다

20일까지 학교 홈페이지로 접수

100명 대상 6개 분야 사업 진행

취업전략본부(본부장 임재운)가 미취업 졸업생의 취업에 발 벗고 나선다.

우리대학이 고용노동부 지원 ‘2014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제주지역 최대규모인 3억1250만원(고용노동부 2억50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6250만원)을 지원 받는다.

미취업 졸업생 100명을 대상으로 △문화 콘텐츠 디자인 △해양 바이오 △미래첨단 IT 융합 △휴양·의료 복합형 관광 △기상 풍력 △마필산업 등 총 6개 분야로 사업을 진행한다.

교육생 모집 공고는 14일부터 우리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온라인으로 지원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까지며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다.

상·하반기로 교육이 진행되며 총 160시간의 교육으로 20시간은 직업 실무에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 60시간은 과정별 교육, 80시간은 인턴 및 현장 실습으로 이뤄진다.

이번 상반기 교육생 모집 대상은 2013년 8월 졸업자와 2014년 2월 졸업자이다. 하반기 교육생은 2014년 8월 졸업자와 2015년 2월 졸업예정자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시·도간 경쟁으로 지역의 고용 관련 기관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종합적으로 심사·선정하여 지원

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 미취업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첨단 과학단지과 혁신도시 이전 우수기업으로 고급인력 공급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시·도간 경쟁을 통해 선발된 사업으로 제주 지역의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한 핵심 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책임교수의 커리큘럼에서 실무에 필요한 교육들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창수 취업전략본부 실무관은 “실무에 필요한 교육으로 진행되는 만큼 인턴과 현장 실습에 더 많은 비중을 뒀다 사업을 지원하고 싶다”며 “취업 통계 조사가 실시되는 6월 1일에 대비하여 빠른 성과를 이루고 싶다”고 밝혔다.

유주연 기자

인문학 최고지도자 과정

25일까지 수강생 모집

인문대학(학장 이창익)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JPDC)의 지원을 받아 ‘제주대 인문대학·JPDC 인문학 최고지도자과정’을 개설해 입학생을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이 과정은 제주 지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인문학적 소양과 지혜를 제공해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1년 과정으로 모집인원은 60명 내외며 모집기간은 17일부터 25일까지다.

이창익 학장은 “이 과정은 국내외 최고의 강사진과 함께하는 연 30주의 강자와 전문가와 함께하는 국내 및 해외 인문 탐방 등 높은 수준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문의=인문대학 행정실(전화 754-2702) 강경태 기자

본부 사무관급 4명 17일자로 인사 단행



조용준 학생복지과장



홍인기 총무과장



김태준 재정과장



고봉권 기획평가과장

제주대가 지난 17일자로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서기관 2명과 사무관 2명에 대해 이뤄진 이번 인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복지과장-조용준 서기관 △총무과장-사무국장 직무대리-홍인기 서기관 △재정과장-김태준 행정사무관 △기획평가과장-고봉권 행정사무관 강경태 기자

실천하는 삶을 위한 특강

김창인 실천철학 연구소에서는 젊은 대학생들의 성공과 행복한 삶의 실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소기념 특별강연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내일의 꿈과 희망을 위한 준비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초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1. 일 시 : 2014년 3월 27일(목) 15:00~

2. 장 소 : 문화교류관(박물관) 2층 세미나실

3. 강연주제 : 나의 인생,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 대학생의 발달과업
- 삶의 목표
- 마음 관리
- 깨어있는 삶
- 실천할 수 있을 때 참다운 인생이 가능하다.

4. 강 사 : 박태수 제주국제명예센터 이사장/제주대 명예교수, (前)한국상담학회 회장

- 김창인 실천철학연구소장 -



누구를 위한 주차장인가…민원 주차장 ‘몸살’

정작 민원인들은 전용 주차장 이용 못해

교통출입증 없는 장시간 주차도 문제

민원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민원 전용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직원 박모씨는 최근 운전 도중 교통 출입증이 붙어있는 교직원 차량 한 대가 민원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목격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민원인 이모씨도 민원인 전용주차장 이용에 애를 먹었다. 그는 “본관에 찾아갔을 때 이른 아침인 만큼 민원인은 적을 시간인데도 민원인 전용주차장에 공간이 없었다”며 “주차할 공간을 찾느라 건물 주변을 맴돌았다”고 말했다.

새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학교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늘어나면서 총무과(과장 홍인기)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총무과에서는 개강 이후를 기점으로 교직원들의 민원인 전용 주차장 이용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구역은 본관 앞 ‘민원인 전용주차장’ 팻말이

있는 곳과 맞은편 인도 앞이다. 주 단속대상은 본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장시간 주차이다.

단속은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에 우선 이뤄진다. 이미 주차돼있던 차량이라도 교직원의 차량은 교통 출입증 조회를 통해 확인 후 연락을 취한다.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출근차량이 많은 시간에는 교통관리자 두 명이 함께 단속한다.

표상철 총무과 실무관은 “실제 주차공간보다 차량들이 넘치는 상황에서 단속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대학교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은 민원인으로 처리되지만 외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다른 곳에 주차를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출입증을 발급받지도 않고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표 실무관은 “일부 학



17일 오전 9시 본관 앞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교직원이 무단 주차하자 이를 교통관리자가 단속하고 있다.

생들이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하기도 한다”며 “교통출입증 미부착 차량에 대한 단속도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내 차량 단속은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의 계도기간 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주 단속 대상은 교통 출입증 미부착 차량과

타인 출입증 및 위조 출입증을 부착하여 운행 중인 차량이다.

단속 위반차량은 △주차위반시 주차권 스티커 부착 △월2회 위반시 경고장 발부 △월3회 위반시 1개월간 교내 출입금지 △학기당 5회 이상 위반시 출입증 회수 및 다음 학기 출입금지 조치를 받는다. 박소연 기자

동경대 지역문화연구 7명 교수 방문

4·3 등 제주 유적지 답사

상호협력관계 맺어

동경대학교 지역문화 연구팀(노도무라 마사루 교수 외 6인)이 지난 17일 오후 5시 재일제주인센터(센터장 김동진)를 방문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문화를 주로 연구하는 이들은 제주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조사차 제주를 방문했다. 동경대 교수들은 재일제주인센터에서 김동진 센터장과 면담 후 박물관과 재일제주인센터 전시관을 둘러봤다. 제주대 방문 전 이들은 재일제주인들이 마을회관 등에 기증했던 송벽비와 4·3유적지, 항일기념관 등을 답사했다.

노도무라 마사루(동경대) 교수는 “일본 식민지 중 제주만큼 일본 본토로 이동한 전례가 없다”며 “일본과 제주는 관계가 상당히 깊다”고 말했다.



17일 재일제주인센터를 방문한 노도무라 마사루 외 6명의 동경대 교수들이 김동진 학예연구사의 설명을 들으며 박물관 전시실을 관람하고 있다.

다.

그는 또 “재일제주인은 학교와 수도 등 제주에 많은 공헌을 했다”며 “그들이 고향에 기여하는 모습에 대한 애郷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동진(사학과) 센터장은 “앞으로 동경대 지역문화 연구팀과 협력관

계를 지속적으로 맺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갈등적 모습이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지역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문화적 동질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태 기자

공인회계사 1차시험

10명 합격, 20.4% 합격률

이번 제49회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 우리대학 학생 49명이 응시해 이중 10명이 합격, 20.4%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같은 합격률은 전국 대학 중 14위에 해당한다.

10명 이상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은 제주대를 포함해 32곳이다.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은 고려대 168명(24.4%), 연세대 167명(23.3%), 성균관대 136명(23.5%) 순이다.

한편 올해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인 대학은 포항공대로 지원자 7명 중 4명이 합격하여 57.1%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어 서울대(28.4%), 경북대(25.1%) 등 순이다. 김보라 기자

전문직여성세계연맹

세계회장 21일 특강

오는 21일 국제교류회관 세미나실에서 OIC사업단(단장 김근형 경영정보학과) 이노베이션 특강의 하나로 전문직여성세계연맹(BPW) 프레다 마리클리스 세계회장이 강사로 나선다. 프레다 회장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BPW 세계연맹은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ECOSOC)의 1급 자문단 제로 5개 대륙 100여 개의 회원국을 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단체 중 하나다.

한편 BPW 세계대회가 5월 23일부터 5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관련 강화된 여성이 기업을 리드한다’를 주제로 전체회의 3회, 워크숍 30회 등을 진행한다. 워크숍 가운데 김만덕의 정신과 제주해녀, 평화 등 제주와 관련된 주제들도 포함됐다. 박소연 기자

용천동굴 호수서 국내 미기록 어류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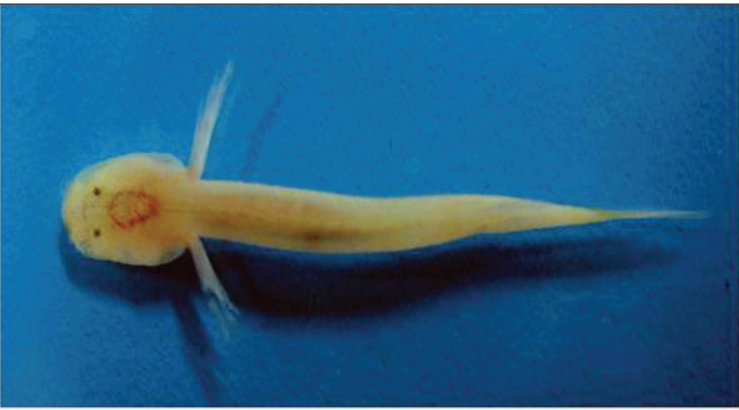
송춘복 교수 희귀 어류 확인

“진화학적 중요성 발견”

최근 제주 용천동굴이자 천연기념물 제 466호인 용천 호수에서 희귀한 어류의 서식이 확인됐다.

이는 2010년 KBS환경스페셜 촬영과정에서 호수에 서식하는 독특한 어류의 목격으로 인해서 집중적인 조사가 실시된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송춘복(해양의생명과학부) 교수와 제주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2012년 7월부터 14년 2월까지 ‘용천동굴 호수생물 및 서식환경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 어류가 국내 미기록 종인 희귀 어류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 용천동굴 어류가 발견된 용천동굴 호수는 총길이가 800m로, 동굴 끝은 모래에 의해 막혀있으며, 수온은 연중 15~16℃로 일정했다. 이렇게 독특한 환경에서 고립되어 반시 출입증 회수 및 다음 학기 출입금지 조치를 받는다. 박소연 기자



송춘복(해양의생명과학부) 교수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용천동굴 호수에서 국내 미기록 종인 희귀어류를 확인했다.

응진화의 과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척추동물의 진화과정을 밝히 나가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춘복 교수는 “이번에 조사한 용천동굴어류의 신종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명이 필요하지만 진화학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발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용천동굴 어류의 경우 개체가 작고 폐쇄적인 환경에서 오랜 시간 적응해왔음을 고려하여 어류가 외부요인의 환경변화에 민감할 것으

로 예측했다. 따라서 서식지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환경변화와 그 영향들을 최소화 하기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국내유일 어류보호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서식지 보전을 위한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서식지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굴 주변에 대한 보호 방안 또한 연구할 계획이다.

김보라 기자

공과대학 자투리 공간에 북카페 열어

북카페 2·3·4호관에 설치

학과 도움받아 운영할 것

공과대학에 북카페가 마련돼 학생들을 위한 편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공과대학 2호관,3호관,4호관에 공대 북카페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공과대학 1호관은 학생들을 위한 휴게공간이 마련돼 있고 북카페는 공간부족으로 설치되지 않았다.

지난해 3월초에 계획했던 이 사업은 지난해 말 공사를 시작해 개강과 함께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다.

강민재 공과대학 학장은 “북카페는 학생들의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공강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쓰지않는 자투리 공간을 활



공과대학 4호관 로비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학생들의 휴게 시설인 북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용하고 학생들의 편의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개방적인 곳 만큼 책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각 학과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창기 공과대학 행정실장은 “각 학과를 통해 읽지 않는 책이나 복수의 책, 교수님들의 전공서적들을 기

증받아 앞으로 많은 책들을 구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세라(전기공학과 3) 학생은 “북 카페가 생겨 많은 학생들이 더욱 편하게 학과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아직 책이 많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두드림 심리검사 프로그램 20일·26일 진행

남녀 구분 없이 참여가능

심리검사 통해 직업 탐색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 송현선)에서 운영하는 두드림 심리검사 프로그램이 오는 20일과 26일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 진행된다.

참여대상은 학년과 남녀 구분 없이 우리 학교 학생이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심리검사 시간은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편한 시간대에 센터로 찾아가면 된다.

특별히 새학기를 맞이하여 총 두 번의 두드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경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실무관은 “새 학기인 만큼 보다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두 번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심리검사 프로그램은 총 3가지의 프로그램으로 MBTI 성격 유형검사, 홀랜드(Holland) 적성 탐색 검사, 표준화 성격 인성검사로 이뤄져 있다. 학생들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MBTI(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성격 유형검사는 개인이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자기보고 문항을 통해 각자가 인식하고 판단할 때 선호하는 경향을 찾아낸 후

그 경향들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여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검사이다. 이 검사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선천적인 성격 특성을 알 수 있다.

홀랜드(Holland) 적성탐색검사는 진로유형에 따른 직업을 찾기 위한 심리검사이다. 활동 및 직업에 대한 흥미, 성격, 특성에서 나타나는 직업적 성격 유형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유형을 찾는 검사이다.

표준화 성격 인성검사는 현재 자신의 심리적 정서상태를 알 수 있는 검사이다. 세 프로그램의 검사 소요시간은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각각 30분 내외로 이루어진 유주연 기자

8학기 이상 휴학시 미복학 사유로 제적

휴학생 비율 40%

군휴학 제외 일반 휴학 3975명

올해 1학기를 기준으로 우리 대학 전체 학생 약 1만5000명 중 재학생이 약 9000명인 가운데 휴학생은 약 6000명을 차지하면서 휴학생 비율이 40%에 달하고 있다.

휴학생 가운데 군 휴학생은 2000명이고 나머지는 일반 휴학생이다. 지난 11일 기준 일반 휴학생 수는 3975명으로 이 가운데 휴학기간이 1년인 휴학생이 13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휴학기간이 2년, 3년, 1년,

4년, 5년인 휴학생이 각각 574명, 378명, 296명, 291명, 248명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휴학기간이 10년이 넘는 학생도 111명에 달했고 6년에서 10년간 휴학 중인 학생도 총 694명이다. 이들 휴학생 중에는 21년 전 입학한 학생도 2명 포함돼 있다.

대학 본부는 장기 휴학생이 복학할 경우 적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휴학기간이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학칙을 개정해 올해 1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발생하는 학기를 합산해 8학기 이상 휴학한 경우 미복학 사유로 제적된다.강경태 기자

스펙초월 간담회 개최

4월 23일 청년위 방문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남민우)가 다음달 23일 제주대를 찾아 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현장 간담회를 마련한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는 13일 부산대를 시작으로 오는 5월 28일까지 전국 10곳 대학을 방문해 스펙 초월 현장 간담회 ‘톡톡 스펙 초월’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간담회는 스펙 초월 채용에 대한 소개와 기업별 제도 설명,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대기업·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와 스펙 초월 채용전형 등을 통해 입사한 직원들이 참여해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강수빈 기자

직원 인재상 27일까지 공모

대학비전 실현 등 미래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직원 인재상’을 정립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주대학교 직원 인재상’을 오는 27일까지 공모한다.

응모는 대학 구성원 누구나 가능하며, 총무과 담당자 이메일(ksw30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 선정은 최우수 1명, 우수 1명을 선별한다. 부찬우 기자

사람들

송석준(수학과) 교수

세계 수학자대회 심사위원 선정



송석준(수학과) 교수가 오는 8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 수학자대회’ 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 이 대회는 4년마다 열리며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수학자에게는 수학 분야에서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 메달을 수여한다. 이번 대회는 3000여 명이 논문 발표 신청했으며 심사위원회는 최종 발표 대상 논문을 심사한다.

이명곤(철학과) 교수

『철학, 인간을…』 출간



이명곤(철학과) 교수가 5일 『철학, 인간을 사유하다』(세창출판사)를 펴냈다. 이 교수는 저서에서 복잡하고 모호한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가치있는 삶, 진실한 삶, 행복한 삶을 고민하게 만든다. 이 책은 새는 새다울 때

행복하듯 인간은 인간다울 때 행복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근거로, 삶에 대한 이 물음들에 답한다.

강민수(생명공학부) 교수

예비역장교단연합회

제주지구 초대회장

강민수(생명공학부) 교수는 최근 제주시 더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예비역장교단연합회(회장 이동형 전 ROTC 중앙회장) 제주지구회 창립 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교수·학생간 소통기능 강화

취업 위한 기업MOU 확대

인터뷰 이창익(일어일문학과) 인문대학장

▶인문대학의 사업 방향을 큰 틀에서 설명한다면.

“예년과 같이 맞춤형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전문적 기술 습득과 취업을 향상에 도움을 주겠다. 새롭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후원하는 인문학 최고지도자과정을 개설한 만큼 인문학 강좌에 폭마른 도내외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최고의 강사진으로 꾸려 진행하겠다. 이와 함께 학과 경쟁률을 높이고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님과 학생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 예로 집담회 형태의 ‘인문대학 포럼’을 열어 상호전문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

▶인문대학 졸업자 취업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었다. 이에 대한 방안은.

“취업적성을 파악하기 위해 취업전략본부와의 취업상담을 활성화시키고, 도와 취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 가끔적이면 많은 도내외 기업들을 방문해 인문대 졸업생들이 한명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도록 단과대학과 기업과의 개별 취업MOU도 맺어 나가겠다.”

▶올해 첫 인문학 최고지도자과정의 개설된다.

“제주개발공사가 후원하는 만큼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도내외 인문학 보급을 위한 좋은 기회다. 최고의 강사진으로 꾸려 60명의 도내외 지도자를 대상으로 30주 동안 강의할 계획이다. 인문학의 묘미를 다방면에서 소개하고 인문학콘텐츠 탐방을 마련해 폭넓은 사고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학생취업 프로그램 가운데 최고 성과를 보인 것과 반대로 성과가 미미해 보완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해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취업프로그램들이 저조하다고 해서 그만두면 앞으로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강생 배분 등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인문학과 게임산업이 융합될 수 있는 신설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학생들이 꿈을 향상 크게 꺾으면 한다.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이뤄진다. 자신감을 가지고 치밀하게 취업이나 진학을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확신한다.

정용복 팀장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대학편제 재구성 구체화

인터뷰 김성준(행정학과) 사회과학대학장

▶임기 동안 추진할 사업은.

“대학의 대사회적 정당성은 교육·연구·봉사에 있다. 우리대학은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있다. 시대정신과 대학의 미래전략에 부응하여 사회과학대학 및 행정대학원을 크게 특성화와 내실화, 정채성 및 위상강화 분야로 나눠 발전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임기 내에 취업률을 10% 이상 향상시키겠다.”

▶취업률이 대학평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단과대 차원에서 학생취업을 위한 방안은.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현재 학생들의 토익 평균이 550점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750점대로 높여겠다. 또 대학에서 외국과 견교류학생을 매년 6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해외인턴십 제도 확대 등 학생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은 행정대학원 발전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여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목적사업 지정을 신설하고자 한다.”

▶2012학년도부터 24년간의 법정대학을 끝으로 다시 사회과학대학으로 출범했다. 사회과학대학의 현안과 과제는.

“진정한 사회과학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학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사회과학 특성을 지닌 학과들을 대상으로 대학편제 재구성을 위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를 조성하겠다. 이후 구체화 방안을 모색하겠다. 또한 행정대학원 석사학위과정 6개 전공과정을 평가하여 발전방안을 구상하겠다. 이와 함께 교육관리자과정과 지역사회지도자과정 등 공개강좌과정의 차별화 및 구조개혁을 이뤄내겠다.”

▶끝으로 한마디.

“대학이 처한 시대적 상황이 좋지 않다. 정부는 대학의 특성과 전략과 학제개편 프로젝트에 매진하고 있어, 우리대학도 심각성을 인지하여 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들을 실현하는데에는 교수님과 직원 선생님들의 협조와 성원이 필요하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항상 귀를 열고, 대학 공동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용복 팀장



특성화·구조조정 잘 대처

고등학교 직접 방문 홍보 계획

인터뷰 양성국(경영학과) 경상대학장

▶취임 소감은.

“기쁨에 앞서 솔직한 책임을 많이 안긴다. 특성화사업과 대학구조조정을 임기동안에 학교와 잘 협의해 기초를 잘 닦아야 한다. 이 두가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 제주대와 경상대학이 한-원 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

▶임기동안 경상대학을 어떻게 이끌 계획인가.

“경상대학은 학부, 야간강좌부, 석사과정, 3개의 공개과정 등 타단과대학에 비해 관리할 것이 많다. 모든 일이 한쪽에 치우치면 균형이 깨지기 마련이다. 학부에 중심을 두고 과정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안은.

“경상대학 자체적으로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홍보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올해 추진하고 차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면 우수신입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올해 강의실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 경상대 과목의 수강생 평균이 60명이고 많은 경우 100명까지 된다. 교육환경이 나쁘면 수업의 흥미가 떨어진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식 강의실 2-3개를 만들고 앞으로 학과마다 하나씩 조성할 계획이다. 교수용 교탁PC도 어름방학까지 교체할 예정이다.”

▶경상대 학생들에게 한 마디.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 국제교류본부나 취업전략본부, 기초교육원 등의 프로그램은 아는 사람만 참여한다. 등록금을 냈으면 그만큼 누려야 하는데 4년 동안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또 책을 많이 읽길 부탁하고 싶다. 2주에 한 권을 읽으면 1년에 스물다섯 권을 읽고 방학동안 부지런히 읽는다면 선 권은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책 읽는 습관이 쌓이면 4년 후에는 100권에서 200권을 읽게 된다. 이 같은 독서습관은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이 이 점을 알고 적극적으로 실천했으면 좋겠다.”

강경태 기자



임용고사 준비 지원 확대

글로벌 교원 적극 양성

인터뷰 강동식(과학교육전공) 사범대학장

▶취임 소감은.

“2015년 사범대학 대학평가가 이뤄진다. 평가를 앞두고 취업을 해서 부담도 크고 신경도 많이 쓰인다. 교수들, 학생들과 협력해 좋은 평가를 이끌어 내겠다.”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안은.

“사범대는 특수목적을 가진 단과대학이다. 학생들의 대부분이 임용고사를 보고 선생님이 되기 위해 입학했다. 따라서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겠다. 임용고사 준비실 운영, 시험대비 특강 등에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겠다. 점점 교사 선발인원은 줄어드는데 타대학의 사범대 학과 경쟁하려고 하니 정말 치열하다. 합격자 수를 높이기 위해 학과에서 커리큘럼을 실정에 맞게 바꾸고 스터디 그룹활동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교수들과 협력해 다각도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

▶사범대에서 진행 중인 GTU사업은 무엇인가.

“GTU는 글로벌 교원양성프로그램으로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를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일종의 취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아직 준비단계에 있다. 외국 대학과 등록금, 학점 인정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 차근차근 확실히 준비해 나가겠다.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국제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사범대 차원에서는 취업을 제고에도 일조할 것으로 본다.”

▶GTU사업을 통한 교원양성 협력 대학 간의 소통은 어떤가.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간의 소통은 잘 이뤄지고 있다. 각 대학교 운영위원들간의 소통도 잘 되고 있다. 사범대 혼자만 했으면 힘들었을 일들이 교육대학과 교육대학원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상승효과가 있다.”

▶학생들에게 한 마디.

“1~2학년 때에는 학교활동, 대외활동, 자기계발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3~4학년에는 취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다.”



친환경농업 선도대학 추진

‘농업생명산업의 이해’ 과목 개설

인터뷰 고성보(산업응용경제학과) 생명대학장

▶취임 소감은.

“특성화사업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하는 첫해의 학장으로서는 무거운 책임감이 든다. 시대변화에 맞춰 생명자원과학대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생명자원과학대학의 주요 교육 계획은.

“유독 생명대학은 생명대 학생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교양과목이 없다. ‘농업생명산업의 이해’ 같은 교과목을 개설한다면 교수들끼리도 서로 교류를 해 나가고 학생들 또한 폭넓은 학제를 넘어설 수 있다.”

▶생명자원과학대학의 비전과 목표는.

“가장 큰 트랜드는 친환경농업이다. 그것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지 고민해야 한다. 그런 고민 속에서 친환경농업 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융·복합 창의적 인재양성과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결국에는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겠다. 목표는 친환경 농업과 생명공학의 기술개발 보급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정립이다. 또한 융·복합적이고 창의적인 지식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으로 지역산업과 사회발전을 견인하겠다.”

▶생명자원과학대학의 현안은.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통해 친환경 농업을 위한 연구를 진행시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루는 것이다. 현재 생명자원과학대학 1, 2호관이 오래돼 새로운 생명자원과학대학 건물에 대한 요구가 있어 학장실, 학과사무실, 강의실이 있는 통합 건물을 지을 예정이다. 내년 4~5월 완공을 목표로 교수들의 연구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일단 1차 현안과제이다. 또한 범위가 확대된 총동창회 즉, 생명대학 교수회를 구성할 것이다. 어려운 시점에서 교수회는 중간 네트워크로서 지역사회와의 중심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고 싶은 말.

“자긍심을 가지고 대학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대학 구성원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가 쌓인다면 학습·취업 성과는 올라가고, 그 신뢰는 큰 자산이 된다.”

한나연 기자



특성화사업 선정 위해 최선

해양문화창작 영역 개척

인터뷰 이기호(환경공학과) 해양대학장

▶취임소감은.

“학생들이 졸업을 한 뒤 학창시절을 생각할 때 돌아가고 싶은 추억으로 해양과 학대학을 떠올릴 수 있는 곳이 되고 싶다. 그런 대학이 되도록 해양과학대학의 구성원과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

▶해양과학대학의 문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해양과학대학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로 각종 교육여건이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과학대학의 구성원들과 뜻을 합쳐야 한다. 이해관계의 틀을 벗어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특성화사업단에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게 큰 과제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많은 일들을 매끄럽게 추진할 수 있다. 실제로 약 10년 전에 누리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수행했고, 그 때 투자한 교육기자재 등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특성과 사업도 대학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뿐만 아니라 학생회에서 해양문화창작 활동을 하는 등 학생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이끌어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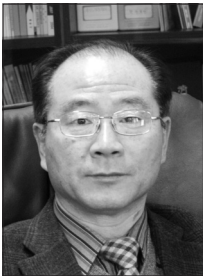
▶해양과학대학의 승선실습에 대해.

“해양대학만이 가지는 실습선과 조사선, 그리고 해양과학연구소를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해양과학대학 학생은 승선을 경험하고, 해양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소양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승선실습이 진행될 수 있는 제도 틀을 마련하고 싶다. 또 제주도에만 청소년 학생들에게도 승선과 관련한 기회가 부여돼 우리 제주대학을 알리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해양과학대학의 발전방향은.

“해양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수님들의 연구와 학생들의 이해는 물론 앞으로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좀 더 밀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와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박소연 기자



시대변화에 맞선문 수의사 양성

신축건물 모두가 만족하는 건물로

인터뷰 이경갑(수의학과) 수의대학장

▶취임 소감은.

“수의과대학이 올해로 생긴 지 6년이 됐다. 4대 학장으로서 단순히 ‘졸업해서 수의사 돼야겠다’가 아닌 ‘어떤 삶을 살아야하나’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양성하고 싶다.”

▶올해 수의과대학이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안은.

“1월 2일자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산업육성법’ 제20조에 따라 말산업 특구로 지정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승마시설, 거점조련시설, 인공수정센터, 전문인력양성기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축산발전기금에서 57억원이 지원된다. 이에 발맞춰 수의과대학은 말전문병원과 승마장을 건립할 것이다.”

최근 한국과 필리핀은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세미나와 협동조합을 통해 교류기로 약속했다. 말산업 전문 수의사를 양성해 학생들에게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싶다. 작년에 말전문 수의사를 양성하려는 시도와 있었다. 올해는 좀 더 집중적으로 말전문 수의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수의대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은 실습을 더 많이 하고 싶어한다. 학생들의 요구를 맞추려면 공간 부족 문제와 비용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수의대 신축건물이 올해 안에 완공되니 공간 부족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신축 건물의 효율적 공간 배치를 통해 학생들과 교수들 모두 만족하는 건물로 만들 계획이다.”

▶학교 측에 하고 싶은 말은.

“수의과대학 신축 건물이 올해 안에 완공된다. 하지만 새로운 건물로 옮기면서 시설을 옮기는 비용과 기자재 구입비가 많이 들 것으로 본다. 학교 측에서 이러한 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좋겠다. 특수 분야인 수의대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세상을 좀 더 넓게 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동물로 분야는 길은 굉장히 다양하다. 학생들이 길을 스스로 찾아보고 기회를 만들면서 해쳐 나갔으면 한다.”

고주희 기자



간호교육기관 인증평가에 만전

신축건물 추진 위한 기반 조성

인터뷰 박은옥(간호학과) 간호대학장

▶취임소감은.

“학장의 자리는 무척이나 영광스러운 자리이며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다. 동시에 간호학과가 처한 상황을 생각했을 때 부담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힘을 모아 간호대학을 만들어가겠다. 두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크다.”

▶임기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가장 큰 과제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간호교육기관 인증 평가를 받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내 자체 평가를 통해 보고서를 제출한 뒤 평가원이 실사를 진행한다. 간호대학교 인증을 받지 못하면 리모델링에 해 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간호사 면허시험을 볼 수 없다. 때문에 무척 중요한 사업이고 올 한 해 동안은 인증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목표다. 두 번째는 간호학과와 국제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외국에서도 간호사 일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고 이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간호대학의 신축건물이 필요할 것 같다.

“간호대학이 최초 인가를 받을 당시 입학정원이 20명이었다. 입학 정원 기준에 맞춰 대학은 설계됐는데 현재는 입학 정원이 70명까지 늘어났다. 이에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교내 빈 공간을 활용했다.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인증을 받기 위해 건물 리모델링 계획 등 각종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결국 최종 목표는 간호대학의 단독대학 건설이지만 하루 이를 안에 결정될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단박에 해결은 불가능하겠지만 임기동안 기틀이라도 마련해 둘 각오를 하고 있다.”

▶‘간호인력 경력상승제’에 관한 생각은.

“간호사의 경력력이 오래되면 의사면허 시험을 보게 해주자. 이 말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조무사와 간호사는 교육과정이 처음부터 다르다. 조무사가 정말 간호사가 되고 싶다면 간호사의 교육과정을 다시 받으면 된다. 국민들이 편안한 간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인력이 필요하다. 사실 논란 자체가 많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강수빈 기자



예술디자인대학 통합 공간 마련

화합과 소통 위해 최선

인터뷰 박성진(미술학부) 예술디자인대학장

▶취임소감은.

“현재 한국 교육이 급변한 상황이다. 전국 대학이 구조조정과 특성화사업에 학교의 사활이 걸렸다. 대학구성원 모두가 단결해야할 어려운 시기에 보직을 맞아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지난 19년간 연구와 교육

에 몰두했다. 하지만 학장은 예술디자인대학과 제주대를 위해 심부름을 하는 역할이다. 앞으로 행정적인 면을 잘 보완해야 한다. 기쁨보다 걱정이 앞선다. 출신수범에서 예술디자인대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지난 학장님이 예술디자인대학의 초석을 쌓았다. 임기동안 그 초석을 잘 다지도록 힘쓰겠다. 예술디자인대학은 통합을 하면서 이들이 한 곳에 모이는 통합 건물이 없다. 먼저 올해 미술관 옆으로 들어설 신축 음악관 설계를 시작했다. 그 후 디자인관이 바로 뒤쪽으로 신축해 하나의 통합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준공을 시작하면 최선을 다해 예술디자인대학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또 예술은 개인의 개성이 뚜렷해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경우가 잦다. 임기동안 소통과 화합을 우선순위로 추진하겠다. 이와 더불어 예술디자인대학이 우리의 몫을 담당할 하도록 다짐들 역할을 하겠다.”

▶학생들에게 한 마디.

“학생들의 생각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간혹 느낀다.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부족하다. 예술은 끈기를 갖고 노력해야 하는 전공이다.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처럼 대학에서는 아르바이트가 아닌 자신의 전공에 얼마나 열정을 쏟느냐가 중요하다. 사회적 경험을 쌓거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특히 예술은 전공 특성상 이런 어려움은 많다. 하지만 이렇수록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 노력과 열정이 바탕이 돼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앞으로 학생들이 진취적인 생각으로 학교생활에 임하길 바란다.”

강경태 기자



의전원 인증평가 대비 철저

졸업예정자 인턴제 실시

인터뷰 주승재(의학과) 의학전문대학원장

▶취임소감은.

“모든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수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취임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또한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야함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학생들을 누구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인재로 만들 것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의 올해 과제는.

“가장 시급한 목표는 2015년에 시행되는 의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이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유지 학생 수 감소와 더불어 학생들의 의사면허 취득자격이 제한된다. 의학전문대학원은 2005년에 조건부 승인을, 2010년에는 5년 인증을 받았다. 평가가 2014년도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올해가 가장 바쁘게 흘러갈 것 같다. 각종 규정의 점검과 의전원의 미비한 부분을 개편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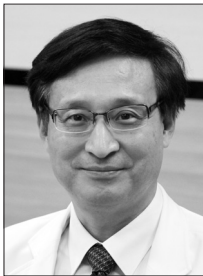
▶임기 내 진행할 주요 사업은.

“먼저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체계를 정비할 생각이다. 먼저 PBL, TBL, CBL(토론식 교육)등의 교육 방법들을 도입하여 보다 실제적인 교육을 받게 할 것이다. 이어서 학생 인턴제를 실시할 것이다. 이는 최근 의전원의 교육 추세가 실습 위주인 것을 반영, 학생들이 4학년이 되는 해에 바로 인턴으로 실습교육을 병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상실습과정을 개편할 예정이다.

연구부 확보와 연구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임상 연구 시험 센터를 설립하는 게 최종 목표다. 또한 지속적인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해 학·석사 통합과정과 MD, PhD 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이외에도 MEET접수를 반영되지 않는 수시 전형제의 부활을 검토중에 있다.”

연구부 확보와 연구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임상 연구 시험 센터를 설립하는 게 최종 목표다. 또한 지속적인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해 학·석사 통합과정과 MD, PhD 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이외에도 MEET접수를 반영되지 않는 수시 전형제의 부활을 검토중에 있다.”

강수빈 기자



>> 학생자치기구 출범식

“초심 잃지 않고 ‘진짜’ 가겠다” 평의회 의결권 확보할 터

정·고광표(경영학과 4·원목)
부·김무송(법학과 4)

인터뷰 ‘진짜’ 총학생회

▶출범 소감은.

“임기를 시작하지 두 달을 훌쩍 넘어섰다. 일반 아라학우들을 대표한다는 것에 막중한 책임과 무한한 영광을 느낀다. 19일 한라타에서 열리는 출범식은 학우들과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다짐이라고 생각한다. 이 마음가짐이 임기동안 흐트러지지 않도록 모든 일에 굳게 임하겠다.”

▶ ‘진짜’란 이전과 다른 학생회를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올 한해 공약이행은.

“슬로건의 의미는 ‘단언컨대, 여태껏 보지 못했던 진짜’이다. 이는 이제까지 총학생회와는 다르게 학우들이 원하는 바를 찾아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즉 진정한 의미의 총학생회가 되겠다는 약속을 슬로건으로 나타낸 것이다. 앞으로 학우들의 권리를 찾고 목소리가 학교 곳곳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학우들에게 항상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우리대학의 발전과 학생들의 삶이 뿌리내린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현재 이행된 공약은.

“공약이행 이행과정은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현재방을 운영해서 학우들의 책값 부담을 덜고자 노력했고, 학생 생활관 입주생들의 이사를 돕기 위한 무빙워크 지원으로 학생들의 걱정을 덜었다. 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학교 주변 자취방 정보를 제공했다. 유학생들의 장학금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현재는 일반아라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7일부터 학생회관에서 취업부스와 REAL PLAN이 동시에 진행된다. 또 생활협동조합과 협의해 조합원증 발급과 그에 맞는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다. 시험기간에는 학생회관 한라카페테리아를 야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공약이행 과정에서 가장 큰 소득은 4학년 기성회비 2.32%와 학부생 수업료 0.25% 등 등록금 인하를 이뤄냈다는 점이다. 또 장학금 수혜자의 등록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약은.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보다는 모든 공약에 대해 학우들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똑같은 가치를 두고 진행하고 있다. 학우들이 학교에서부

터 자신의 생활터전을 만들어야 한다. 그 중심에는 수업권, 생활권, 문화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학우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공정하게 평가받는 수업권이 있어야 한다. 또 학우들이 금전적으로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니고 통학에 불편함이 없어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들의 젊음이 자유와 문화로 융성돼 대학생활의 낭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생각이 진짜 총학생회의 가장 큰 목표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약들을 학교측과 협의하며 진행하고 있다. 성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인하율을 결정함과 동시에 학생회차원에서 학생복지시설 사업들을 요구했다. 경성대 오르막길 계단 설치, 인문대 오르막길 미끄럼방지, 계절학기 교내순환버스 운행, 정문 버스정류장 비가림막 리모델링 등 학교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적용되도록 노력했다. 현재 재정과 학생복지과, 시설과와 협의하고 있다. 총장님께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 요구하고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학교측과 학생회, 교직원들이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총장 선출권 확대와 평의회 참여권 확대 및 의결권 보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학생들을 위한 학교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등록금 협상 결과가 ‘절름 인하’로 결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2009부터 3년간 등록금을 동결했고 2012년에는 5.7% 인하, 2013년은 4학년에만 1.7%인하로 인해 학교 측은 대학 재정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2014년에는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동결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학생 대표들은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인하를 적극 주장했고 학교측과 협의해 결국 전 학년대에 대해 등록금 인하를 결정했다. ‘절름 인하’라기보단 모든 학부생들이 등록금 인하가 됐다고 생각했으면 한다. 조금이라도 등록금 부담을 덜고자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이는 학교와 학생회가 계속된 협의를 통해 학우들의 목소리를 학교 행정에 반영했

다는 점에 더욱 큰 보람을 느낀다.”

▶학점포기제도 폐지에 대한 과정은.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학점포기제도 즉각 폐지를 권고했다. 이에 총학생회는 13학번까지의 학점포기제도를 적용하고, 14학번 신입생부터 폐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교육부 지침에서 제도 폐지를 안하는 경우 대학의 재정적·행정적 제재를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학점포기제를 당장 폐지하면 많은 학우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한 학기를 유예하고 폐지하도록 결정했다.

추가적으로 2학기부터 졸업하기에 상황이 여의치 않은 재학생(7학기 이상 수료)을 대상으로 학사과와 논의 후 재이수를 통해 학점관리가 가능하도록 수강신청 최대학점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교육부의 일방적인 지침을 학교와 논의한다고 알렸다. 한 학기를 유예하고 2학기부터 폐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평의회 의결권 획득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2013년 평의회 참여권 획득은 이공일이 총학생회가 학교, 교수회와 끊임없이 대화를 거쳐 얻은 값진 결과물이다. 학생이 주인인 학교에서 대학운명을 심의하는 회의에 학생들의 뜻을 전하고 의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권리 증진을 위해 의결권 획득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평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평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학생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대화를 통해 의결권을 획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의회 의결권 획득을 위한 일반 학우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총학생회가 힘을 더할 수 있도록 학우들의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

▶디어[dir]아라 장학금 진행 상황은.

“디어[dir]아라 장학금은 총동문회와 연계하여 실현해야 하는 사업이다. 참가 동문한 명당 하루에 천원씩 모금하면 그 모금액이 모여 우리 학우들을 위한 장학금이 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총동문회 임원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상당히 긍정적인데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먼저 동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아가야 한다. 또 장학금 수혜학생 선정기준, 모금기간, 모금비용 등 많은 과제들을 총동문회와 연계하여 진행해

야 한다. 현재 총동문회 임원진이 총학생회와 함께 동문들에게 홍보를 하고 참가 동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계속해서 디어[dir]아라 장학금으로 학생들의 부담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

▶취업부스와 REAL PLAN 진행 상황은.

“선거운동본부 때부터 학우들에게 낮은 자세로 직접 소통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유수의 대학을 방문해 보면 대부분의 취업부서가 학생회관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학우들에게 취업정보를 쉽게 제공하고 학생들이 손쉽게 취업설계를 하도록 대학 차원에서 배려한 것이다. 우리대학은 취업전략 본부를 대학 본관에 자리해 존재를 모르는 학생도 있으며 알려라도 자주 찾지 않는다.

이에 취업전략본부와 학우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직접 취업 부스를 학생회관 1층에 설치해 학우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학우들이 보다 쉬운 취업설계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REAL PLAN은 학년별 맞춤취업 계획을 말한다. 학우들이 직접 적성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취업계획 설정을 취업전략본부, 취업컨설팅트와 1:1 맞춤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다. 학우들이 원하는 꿈과 진로에 다가설 수 있게 노력하겠다.”

▶외국인 유학생과 장애학우를 위한 노력.

“먼저 외국인 유학생은 장학금 수혜 기준인 학점 2.7점 이상을 2.4점으로 낮춰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 이제까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와 전공과목 공부에 많은 부담이 있었다. 선정기준을 낮춤으로써 이들이 더욱 학업에 열중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장애학우들을 위해 총학생회 회의에 참여시켰다. 학교생활에서 생긴 애로사항들을 즉각 건의하고 조치 받도록 했다. 장애학우에 대한 예산은 대학본부 차원에서 집행되도록 예산 분배했다.”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총학선거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됐다. 51% 지지해준 학우들에게 약속들을 실천하고, 나머지 48% 학우들과 함께 하나 된 제주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학우들의 권리를 증진시켜 학교에 우리들의 삶이 뿌리내리도록 만들겠다.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일반 학우들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 목소리를 더해주길 바란다.” 강경태 기자

“학내 성폭력 방지와 여학우 복지에 최선”

정·정승원(환경공학과 4·원목),
부·안은지(관광경영학과 3)

인터뷰 ‘여기부터’ 총여학생회

▶출범 소감.

“출범식은 2014년 ‘여기부터’ 총여학생회를 알리는 첫 행사인 만큼 학우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전 출범식의 무대게임 진행 등은 일반 학생들의 참여가 어려운 점이 있어 부스운영의 폭을 넓혀 준비하고 있다. 신입생들은 물론 재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현재 이행된 공약은.

“작년에는 중앙도서관과 제2도서관에 화장실 통신문이 없었으나 지금은 중앙도서관과 제2도서관에 게시하고 있다. 다른 공약들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너나들이국 운영의 주요 내용은.

“작년에 교내 성추행 사건이 대두돼 학생들이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고민이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총여학생회가 적극적으로 성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서로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라는 뜻인 너나들이처럼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새 부서를 만들었다. 학생들이 성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는 특임국이다.

이와 함께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소식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학내에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알찬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너나들이국에서 학생들과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와의 가교 역할을 할 예정이다.

너나들이국 상담 신청은 어려운 절차 없이 가능하니 많은 학우가 이용하길 바란다. 성문제관련사항은 소리함을 통해 전할 수 있고 총여학생회실은 물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교내 버스정류장 버스시간표 설치하는 어떻게 되가고 있다.
“버스가 도착하는 정시간에 맞춰 버스시간표를 제작하려고 했다. 그러나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유동적인 만큼 정확한 시간을 예측할 수 없었

다. 정문에 붙어있는 운행시간표라도 설치하기 위해 담당자와 협의하려 했으나 곧 버스정류장을 다시 세울 계획이라 시간표를 부착해도 몇 주 밖에 쓰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지공경부암 예방접종은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지난해 지공경부암 예방접종은 한국병원과 다나산부인과에서 실시했다. 신체주권에 거주하는 여학우들은 예방접종을 받지 불편하다는 말을 했다. 현재 구제주권은 다나산부인과에서 3월 21일까지 예방접종을 신청받고 있다. 더 많은 학우들의 의견을 모은 후 신제주권 산부인과와 예방접종이 가능할 수 있게 협상할 계획이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부스 설치와 성문제 인식 캠페인 진행 정도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부스를 통한 적성검사는 9월 총여학생회 축제 때에 예정하고 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와 연계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파악하는 등의 검사를 실시할 것이다.

성문제 인식 개선 캠페인 또한 9월 축제 때 진행할 것이다. 학우들의 성문제에 대한 인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 건강증진센터와 함께 성문제 개선과 호신술 강의를 위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간단한 호신술을 준비해 체험하도록 하겠다.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캠페인이 되길 바란다.”

▶여학생휴게실과 대어물품 위생관리.

“대어물품 위생관리로 여학생휴게실의 개방이 늦어졌다. 청소를 더욱 깔끔하게 마친 후 4월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개방 후 이불과 베개, 대어물품인 담요와 트레이닝복 바지 등은 셀프빨래방에서 정기적으로 세탁해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하겠다.”

▶원터치 SOS 위치추적 서비스란.

“원터치 SOS 서비스는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버튼 하나로 위치추적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후문순찰대를 지원해주는 남문지구대 추천으로 원터치 SOS 위치추적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에 대해 민감한 만큼 학생들의 자율적인 신청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박소연 기자

“학과대표가 추진하는 봉사활동 첫 선 학생회 감사와 선거준비에 만전”

정·고명찬(수학과 4·원목)
부·고현우(수산생명의학전공 4)

인터뷰 ‘우선순위’ 총대의원회

▶출범 소감은.

“부담도 많이 되지만 열심히 준비를 한 만큼 기대가 더 크다. 올 한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역대 총대의원회 중 ‘우선순위’가 학우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하는 것이 목표다.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를 위한 것이 아닌 일반아라 학우들을 위한 총대의원회가 될 것이다. 또한 각 학생자치기구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학내 구성원들이 관심과 응원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총대의원회를 소개하자면.

“총대의원회는 학생자치기구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견제 역할을 하는 곳이다. 다양한 입부 중에서도 학생회비 승인, 학생자치기구의 사업 평가, 회칙 개정안에 대한 발의 및 심의, 의결 등이 주된 역할이다. 결국 학생회를 심의·감사하여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들겠다.”

▶임기 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많은 사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Volunteer & I make a Plan(VIP사업)’ 사

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 사업은 학과대표가 직접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처음으로 준비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해 성공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를 통해 학과대표들이 리더십을 키우고 일반아라 학우들이 하나가 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아직까지 학과대표가 단순히 ‘심부름꾼’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이 한 학과를 대표하는 책임자임을 알리도록 여러 방안을 계획 하고있다.”

▶‘우선순위’의 공약 사항 진행상황은.

“우선 학과대표 할인혜택과 경력사항 기재 등의 기존사업은 이미 진행하고 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학과대표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했다. 학과대표들이 자신들의 혜택 업체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했다. 공약에 내세운 사업들의 구체적인 계획은 모두 마친 상태다. 먼저 단과대학 대의원실 복합기 설치하는 프린터 업체와의 협약을 모두 마쳐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모든 단과대학에 대의원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대학

을 돌아다니며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시험기간 세면도구 지급은 중간고사 내에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200개의 세면도구를 마련했다. 이를 대 번에 걸쳐 50개씩 나눠줄 계획이다. 그 외에도 휴대폰 급속 충전기 설치와 VIP사업 등도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

▶올바른 선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계획은.

“선거운동본부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제도적인 측면으로 선거운동본부의 단체복 숫자 규제와 선거인 규모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무조건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일정 수준만 제재되되 각 선거운동 본부의 홍보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다. 한마디로 윈-윈 관계가 우리의 목표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에게 한마디.

“먼저 출범 준비에 힘써준 우선순위 식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모두가 함께 준비한 만큼 멋진 출범식이 될 것이다. 학과대표들이 총대의원회를 편하고 부담 없이 느끼길 바란다.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총대의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강수빈 기자

“대학문화의 산실, 동아리 활성화에 주력 학생회관 임대관리 형평성 지킬 것”

정·고두현(생활환경복지학부 4·원목)
부·김현두(생명과학학과 4)

인터뷰 ‘당.신.의’ 동아리연합회

▶출범 소감은.

“18일 해오름식을 제목으로 출범식을 열었다. 모든 중앙자치기구와 동아리사람들에게 동아리연합회의 출범을 알릴 수 있어 가슴이 벅차다. 앞으로 1년간 계획을 잘 이뤄 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

▶동아리연합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동아리연합회가 어떤 자치기구인지. 또 앞으로 어떤 동아리연합회를 만들고 싶은지.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들이 연합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동아리끼리의 결사체나 이들을 위한 서비스 기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아리가 활성화 되지 않아 동아리연합회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대학문화를 이끌어내야 대학 문화가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동아리연합회는 중앙 동아리만으로 이뤄져 폐쇄적인 느낌이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총동아리연합회이다. 대학문화의 중심, 폭넓은 제주대학교를 이루는 동아리연합회를 만들고 싶다. 또한 동아리인들의 복지와 편의를 우선시하도록 노력하겠다.”

▶동아리 문화 활성화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올해는 동아리연합회 주간으로 하는 행사보다는 동아리 자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동아리 행사를 유도하고 동아리가 무엇을 하든 도움을 주는 동아리연합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각 동아리회장 임원진들의 열정이 같이 필요하다.

도청문화형성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학생 대표로 제주대학교 동아리연합회장이 있다. 제주대로 늘려가려 없는 등 대학문화가 없으니 공동학생과 대학생 동아리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동아리 홍보와 동아리회원들을 가입받고 있다. 어려움은 없는지.

“최근 각 동아리마다 짧은 시간에 많은 학생들을 유치했다. 아무래도 도의 지역 출신 학생들이 동아리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공간시간 등 자투리 시간활용을 위해 동아리 가입이 이뤄지는 것 같다. 동아리연합회에서는 동아리 홍보를 위해 홍보 팸플릿을 각 단과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나눠 줬다. 동아리 홍보작도를 만들어 학생회관과 교양동, 학생생활관처럼 주

로 이용하는 곳에 부착해 알리고 있다. 또한 동아리연합회를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동아리에 대해 설명하고,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학생회관 관리를 동아리연합회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지.

“학생회관 관리권을 받아 온 만큼 관리에 대해서 형평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동아리에게 무조건으로 우선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 외부에서 원한다면 기거사 사용을 허락하고 있다. 관리국장이 이를 체계적으로 문서화 시키고 세칙을 만들어 동아리 및 각 단과대학이 사용할 때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구성원들에게 한마디.

“제주대 학생들에게 신뢰받고, 동아리에 의의 있는 당.신.의 동아리연합회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 슬로건대로 우리는 이 약속을 최대한 지켜갈 것이다.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일이라 생각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주길 바란다. 역대 제주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중 최고가 될 것임을 약속하겠다.

김보라 기자

» ‘한국 사설박물관 1호’ 제주민속박물관 진성기 관장

‘제주도학’ 평생 연구해 온 학자… 박물관 개관 50돌 맞아

책 30여권 저술·유물 3만여점 수집해

국문학과 2학년 시절『제주도 민요』출간

오늘날 제주청년들에게 제주민속 유물은 그리타분한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제주시 삼양 3동에 위치한 제주민속박물관은 박물관이라기엔 너무 누추해 안쓰러움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이 박물관을 51년째 지키고 있는 진성기 관장에게 ‘제주 민속’은 ‘그리타분한’이 아닌 평생을 함께한 특별한 연구대상이다.

우리나라 사설 박물관 1호인 제주민속박물관은 1964년 6월 22일에 개관해 오늘날 반세기 넘게 제주의 민속 문화를 지켜왔다. 박물관 1층은 주로 토기, 도기, 철기 등이 전시돼 있다. 2·3층은 생활사 관련 유물로 꽉 차 있다.

진성기 관장은 1958년 제주대 국문학과 2학년 시절 『제주도 민요』제1집을 출간했다. 대학생 진학을 하고 누구보다 제주민속 문화를 열심히 공부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지를 돌며 민속자료 수집에 노력했다. 그는 스무 살 안팎의 나이로 농어촌의 어르신들의 구전문예를 채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진 관장의 민요를 적겠다는 말에 사람들은 당치도 않라며 비웃었다고 한다. 제3집까지 출간된 『제주도 민요』는 그가 학생시절 제주도 곳곳을 누비며 모은 제주도 민요 1500여 편 가운데 300여 편이 실려 있다.

그는 재학시절 『제주도 민요』뿐만 아니라 『제주도 속담 1·2집』(1959)과 『제주도 설화집』(1959)를 더 출간했다.

“제주는 이색적이고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화가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말살정책과 서구 문화유입으로 소멸 직전에 이르렀고 제주 문화를 수집해 후세에 전해줘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지금까지 평생을 몸담고 있습니다.”

진성기 관장은 제주민속유물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날로 사라져 이를 수집하여 지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느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품을 팔아 유물들을 모았다. 그 결과 박물관에는 제주의 무형 신화, 전설 등 구비문화 1만여 점, 생활 유물 1만여 점과 이에 관련된 서류 1만여 건 총 3만여 점을 수집할 수 있었다.

“농어민들은 조상의 손때가 묻은 것이 좋다고 붙들고 지켜왔기에 나와 같은 민속학도가 찾아갔을 때 그것을 만족스런 표정으로 내어 줄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가 민속의 보고라면 그 보물을 지켜 온 제주의 농어민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는 박물관에 있는 모든 유물 하나하나가 다 조상들의 손때

는 물론 슬기와 향기가 묻어 있다고 이보다 소중한 것들은 없다고 말한다.

“당시 아스팔트 도로도 버스도 없었습니다. 마을 곳곳을 걸어 다니며 유물을 수집했습니다. 그 덕분에 유물의 명칭이나 용도를 부수적으로 아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는 유물을 수집할 때 도내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많은 애를 써야 했다. 신화나 전설, 민요나 유물을 닦치는 대로 주워 모으기 위해 산간벽촌과 아촌 등을 출근 찾아 다녔다.

오막살이 할머니의 노랫소리에 귀 기울이던 때 경찰관이 찾아와 파출소로 연행을 당하기도 했다. 장사꾼도 아니면서 시골에 와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그들에게 수상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다. 당시는 농촌 사람들이 4·3이나 6·25전쟁을 겪고 나자 낯선 사람을 간첩으로 의심하곤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보유했던 제주 문화재가 유실돼 없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남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했기에 뿌듯하다고 말했다.

박물관을 열고 책을 쓰면서 대학교에서 강의 제의도 있었다. 아파트와 차까지 제공하겠다는 달콤한 제안이 그에게 들어왔다. 그러나 강의하면서 연구하고 책을 쓰는 것은 힘들다는 생각에 그 제안을 뿌리쳤다고 한다.

“팔자 고치려고 많은 유혹에 넘어가버렸다면 아마 저는 제주 유물을 전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신화·전설·민요·속담·지명·무가·수수께끼·금기어·향토음식·구비 등 민속학적 자료와 민속유물을 수집하면서 제주도 민속에 관한 저서 제주민속총서 30여 권을 출판했다. 지금도 책을 쓰고 연구도 하며 홀로 박물관을 관리하고 있다. 전시 유물 옆에는 유물 하나마다 설명을 적어놓은 작은 카드가 있는데 진 관장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직접 써 놓았다. 간혹 ‘볼 거 없다’거나 ‘시시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치를 몰라보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제주민속박물관은 온갖 수난을 버텼다. 진성기 관장은 맘 흘려 모은 450점의 유물을 가지고 마땅한 건물도 없이 셋집 뜰에 쌓아놓고 박물관을 시작했다. 주변의 도움으로 건물을 마련해 제주 민속 유물을 변두한 공간에 전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이 헐리게 되자 건물 주인이 유물을 몽땅 빼앗아 버렸다.



제주민속박물관에 지상의 신을 모은 ‘제주무신궁’을 조성해 뵈다(사진 위). 올해 79세를 맞은 진성기 관장(아래 왼쪽)은 평생동안 동자상(아래 오른쪽)과 같은 유물, 구비 문학, 서적 등 3만여 점을 수집했다.

그는 다시 반년동안 민속유물 수집에 집중하고 현재 민속자연사박물관 자리에 새로 민속박물관을 개관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그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다. 제주도지사가 진 관장의 민속박물관 자리를 탐내 그를 밀어낸 것이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민속박물관 터를 지켰으나 행정명령에 굴복하고 말았다. 전시실 70여 평을 1500만원에 빼앗겨 버렸다. 그 동안의 피나는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 버린 것이다. 그 당시 땅 한 평에 50만원을 호가하고 있었다. 이런 수난을 거친 후에 민속박물관은 1979년 6월 22일 오늘날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됐다. “제주의 민속 문화는 한라산만큼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연구하는 데는 한평생을 바친다면 보람도 있고 큰 업적을 남길 것입니다” 진 관장은 제주의 진 역사 속에 이색적이고 독특한 문화를 강조한다.

진 관장은 아직도 이 문화들을 하나라도 더 갖고 싶어하는 일에 분주하게 일한다. 자신이 그동안 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제주 문화와 제주의 뿌리를 찾고 보존해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는 제주 민속 문화를 한 번에 이루는 것이 아닌 유물, 전설, 신화를 차곡차곡 모아 조금씩 그리고 하

나씩 키워가길 꿈꾸고 있다. 그러다보면 자신처럼 이 일에 미치는 사람이 나올것이라고 믿는다.

“1000만 제주관광 시대를 맞아 제주민속 문화를 연구하고 개발한다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것을 먼저 사랑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성기 관장은 지난해 뇌경색으로 몸이 마비돼 제주대병원에 입원 했었다. 그가 살면서 얻은 것은 병이지만 그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지금도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는 자기 스스로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길 권했다. 당장의 밥벌이만을 찾아 헤매다보면 밥이야 먹겠지만 큰 공부한 보람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자신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을 찾길 바랬다.

진 관장은 그동안 아침에 진열돼 있는 민속유물을 돌아보며 하루하루 생활한다. 그 안에서 인생을 배우는 만족감은 형용할 수 없이 행복하다 말한다. 금간 찌시 한 개, 조각난 나막신 한 켤레라 할지라도 그 유물은 발로 뛰며 모아 이룬 것이 ‘제주민속박물관’이다.

강경태 기자

아라초대석 〈3〉 제주 문화공간 ‘왓집’ 대표 윤선희·문주현·김정희씨

“제주문화 맘껏 즐기는 달콤한 인생”

“우리와 함께 재밌는 일 해볼래요? 발코니에서 연주회 할까요?”

건물 곳곳에는 제주 문화가 한 가득 담겨있다. 휴일이면 가수들의 공연장으로, 기념일에는 연인들의 카페가 된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하는 이 공간은 바로 ‘문화 공간’이다. 제주의 문화와 평생을 즐겁게 살고 싶은 ‘Space What? 왓집’의 세 자매를 만났다.

그들의 시작은 단순했다. 서귀포시 이종섭거리의 예술시장, 그곳에서 ‘왓집’의 씨앗이 만들어 졌다. 문주현(30)씨는 예술시장에서 제주어 배지를 제작했다. 윤선희(33)씨는 바느질로 만든 ‘토마’ 브랜드의 말 인형을 판매했다. 김정희(30)씨는 ‘건강진빵’의 브랜드 빵을 만들었다. 단 한번의 만남으로 세 자매의 독특한 세 갈래 길은 하나가 됐다.

“왜 많은 테마 중에 ‘제주 문화’를 주제로 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제일 잘 아는 것이니까. 그리고 제주 문화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에요.” 윤씨는 말했다.

그들은 하나의 공간이 필요했다. 이에 세 사람은 또 하나의 집을 찾아 다녔다. 그리고 현재의 왓집이 자리한 곳에 느낌을 ‘딱’ 받았다. 빈 공간에 세 자매는 자신들의 꿈을 쏟았다. 문주현씨가 기획, 윤선희씨와 김정희씨의 건축 설계까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신들만의 ‘왓집’을 탄생시켰다.

이들의 집 이름인 ‘왓’은 제주어로 ‘밭’을 뜻한다. 자신들의 밭에 제주의 문화를 뿌리겠다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한편 세 자매에게는 왓집에 얹힌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다.

“왓집의 문을 열기 전에 베트남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여행을 다녀오니까 일하기가 너무 귀찮은거예요! 차일피일 일정을 미루다 어느 날 정신없이

오픈식을 가졌어요. 세상에, 우연의 일치인지 우리가 4월 5일 식목일에 문을 열었지 뭐예요. 결국 우리는 문화를 심은 셈이 되는 거죠. 하하하.” 문씨가 씩 웃으며 말했다.

왓집을 만들고 그들은 새롭게 출발했다. ‘오메기 떡’, ‘선다리’, ‘돌코롬 보리빵’. 메뉴판에 적힌 제주어는 문화 기획 담당인 문씨의 작품이다. 그녀는 서귀포 예술시장에서 판매하던 제주어 배지 또한 제작 판매중이다.

윤씨는 자신의 ‘토마’를 타고 왓집에 들어왔다. 진열장에는 자그마한 말 인형이 가득 채워져 있어 손님들의 이목을 끈다. 그녀는 가끔씩 손님들에게 ‘토마’ 제작 강의를 해주기도 한다.

김씨는 자신의 빵 굽는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있다. 최근 그녀는 ‘설문대 할망과 오백장군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따온 ‘오백장빵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제주의 이야기와 빵과 재료가 뒤죽박죽 섞인 그녀만의 빵을 500개 만들겠다는 얘기다.

“가끔씩 그런 말을 자주 들어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솟는 거냐고. 사실,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서로 편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걸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실천에 바로 옮기면 또 하나의 꿈이 현실로 나오는거죠.” 김씨가 말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LAB 왓’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 각 지역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또한 장소에 얽힌 사람과 역사, 문화, 자연, 삶을 기록한다 이렇게 모인 이야기를 그녀들은 한데 모아 ‘이야기 지도’를 만들었다.

그들의 활동은 끝을 모른다. 아직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가득하다. 왓의 마지막 모습이 어떨지는 세 자매도 모른다. 강수빈 기자



제주 문화공간 ‘왓집’을 탄생시킨 김정희(가장 왼쪽)씨, 윤선희씨, 문주현씨.

로컬뉴스

제주 인구 60만 돌파…2018년에는 70만명 제주도의 긍정적 이미지 인구증가에 영향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1월	369	406	854
2월	680	1,290	1,482
계	1,049	1,696	2,336

제주자치도의 인구증가 추세는 올해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고공 행진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인구는 지난해 8월 60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또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며 2월말 기준으로 60만7006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 해 말 60만4670명 보다 2336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지난해 평균 증가율 2.05%보다 높은 2.3%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동기 증가인원 1,696명 대비 37.7%가 늘어난 인구 증가율로 제주도는 주민행복도 1위를 올해에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제주이주민과 외국인 등 유입인구 증가의 결과로 분석된다. 제주자치도가 올해 2월까지 증가한 인구 2336명을 분석한 결과, 다른 시도에서 순유입 1693명(72.5%), 외국인 229명(9.8%) 등 외부로

부터의 유입인구가 전체 증가인원의 82.3%인 1922명을 차지했다.

이 자료는 유입인구가 자연증가분 414명(17.7%) 보다 크게 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다른 시·도에서 제주로 전입해 온 순유입 인구는 올해에만 1693명이다. 지난해 2월까지 순유입인구 1029명과 비교하여 64.5%가 증가한 것이다.

등록외국인 수도 2013년 2월까지 178명이 증가하였다. 올해에는 229명이 증가하여 28.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제주도는 세계7대자연경관, 유네스코3관왕에 오르는 등 청정환경과 아름다운 풍광을 갖춘 살기좋은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또한 최근 중앙선데いと 서울행정대학원에서 조사한 결과 제주도는 주민행복도 1위, 주거상태 만족도 1위, 경제상태 만족도와 소방서비스만족도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경제와 주거 여건 등이 최상의 상태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와 사회 여러분야에 상승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결과들을 통해 제주에서의 삶에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사람들이 제주로 이주 러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이러한 증가추세가 지속된다면 5년 후 2018년에는 제주인구 70만명도 무난하게 달성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올레길 안내 지도 제작 공항·항만 등에 배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올레길을 걷는 올레꾼들의 편의를 위해 오름·올레길 안내 지도 5000부를 제작했다. 올레길은 전국적인 걷기 열풍을 일으키고 제주 관광의 트렌드를 새롭게 변화시킨 ‘효자’ 상품이다. 안내 지도에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4년 3월 현재까지 개장된 26개 코스의 정보가 담겨 있다. 또한 올레코스의 왕복 소요시간과 코스 안내, 주변 오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됐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지도는 공항과 항만 그리고 안내소·관광공사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도가 오름, 올레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올레꾼들을 위해 올레길 버스승차대 74개소에 올레길에 대한 정보가 있는 안내도를 부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안내도가 설치되면 버스를 이용하는 올레꾼들에게 올레코스의 시작점과 종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며 “인근 마을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어 그동안 올레길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레꾼들이 더욱 올레길을 사랑해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 용암수 융합’ 산업 시·도별 특화발전 후보

‘용암수 융합’산업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군에 선정됐다.

미래발전위원회는 지난 14일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및 지역행복생활권사업 후보군을 발표했다.

제주 용암수는 40만년 전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지하수다. ‘용암수 융합’산업은 연구개발 및 인재창출을 통해 제주형 창조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산업은 용암해수 산업단지(20만㎡규모)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간 시너지를 창출하여 제주지역 자립형 경제기반을 다지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용암수를 활용한 융복합산업 기술개발 지원과 용암수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용암해수산업 기반구축으로 기능성식품·화장품 제조시설, 해수담수화시설, 용암수를 활용한 농·수산물 배양시설 등이 포함된다.

영양염이 풍부하고 유해한 오염물이 없는 청정한 수자원이 제주용암수를 활용한 융복합산업 기술개발 및 연구, 용암수산업의 지속적 성장 및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은 중앙에서 지원된다.

또한 용암수 산업단지 조성 및 신사업 구상 등은 도에서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제주학연구 운영위 발족

전통문화 계승·발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의 독자적인 전통문화(언어, 민속역사, 자연분야 등)를 계승·발전하기 위하여 제주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전문가 총 10명(위원장 7, 당연직 3)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2016년 2월까지이다.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학연구센터의 기본계획과 탐라 역사, 문화,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한 문화기반 연구 사업이다. 그 밖에도 제주고문헌연구, 제주학 총서 자료발간 등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 28일 제주학 연구센터 운영위원회 위촉식을 갖는다. 제주학의 중점 특화사업으로 제주어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주인의 정신을 확립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제주학 연구물, 제주 고문헌, 구술, 영상자료 2544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완료했다.

오는 3월 중순경부터 『제주학 아카이브 웹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하여 지식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웹 서비스’는 제주학 관련 정보 통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제주학에 대한 정보를 알게 해준다.

제주지역 지식재산 중심지 활발한 지식재산권 기대

제주지역이 창조경제의 기반인 지식재산 중심도시로 자리잡고 있다.

특허청이 발표한 2013년 지식재산권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의 지식재산권 신규 등록건수는 1452건이다.

이는 2012년 799건에 비해 81.7%가 증가한 수치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로 전국 평균 증가율 16.3%를 크게 상회했다.또한 신규·출원건수도 2615건으로 2012년 1727건에 비해 51.4%가 증가했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 증가율 8.6%를 크게 앞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제주 도민과 도내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기술 및 상표, 디자인 출원을 활발히 한 결과다. 높은 등록 증가율은 제주지역 내 보육기술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경제 패러다임이 자산기반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변화하고 있다”며 “지식재산에 대한 비중 및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도내 기업들을 위해 지식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화 지원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도 활발한 지식재산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지식재산권이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실

정리=강수빈 기자

교수시론



권상철
지리교육전공 교수

“
수업의 시간을 도서관에서
책과 잡지를 읽으며 보내길...
보다 다양한 관점, 넓은 안목을
가질 기회도 함께 누릴수 있다
”

2014년 입학생들로 학교가 북적인다. 오리엔테이션 겸 신입생들을 위해 두 가지를 얘기해 볼까 한다. 먼저 학생들에게 종종 물어 보던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 대학교와 고등학교는 어떤 것들이 다른가요? 주로 들을 수 있는 답변은 학교가 크다,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등이다.

사실, 유도하려는 목표는 고등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도서관이 있다는 것과 대학교는 방학이 없다는 것이다. 대학교는 교육과 연구를 모두 하는 곳이어서 방학 중에도 움직이고 있고, 도서관은 중요한 시설로 역할한다.

수업 외 시간을 도서관에서 이런저런 책과 잡지, 예를 들면 소설, 자동차, 컴퓨터 등 가리지 않고 빈 시간에 잡식을 채우며 보내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책자형태보다 훨씬 다양한 전자책, 전자저널도 이용할 수 있는데, 조금 전문적이긴 하지만 욕심을 내어 볼 만하다. 특정 주제의 단어만 입력하면 엄청나게 많은 글들을 찾을 수 있어, 과제를 준비할 때 이용해 보면 다양한 글을 참고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금 더 욕심을 내어 영어로 된 자료를 조금씩 보려 노력한다면 3~4년 뒤에는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영어 자료를 보기 시작하면 훨씬 많은 자료

도서관과 책 읽기

와 더불어 보다 다양한 관점, 그리고 넓은 안목을 가질 기회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영어를 따로 공부하기보다 자신이 흥미를 가진 주제의 글을 영어로 읽으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다른 하나는 읽는 일, 특히 대학교에서 접하는 교재나 글들은 무언가 내용 전개가 딱딱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다른 듯해 거리감을 느낀다. 전문적인 글은 흔하게 접하는 글들과 달리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하기에 흥미와는 거리가 좀 있지만, 대학교에 온 이상 한 가지 규칙이라 생각하고 친숙해지면 즐겁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 일 반적으로는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면 딱딱한 글이 조금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양은 추상적, 서양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 새로운 사물, 내용을 이해할 때 동양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며 접근하는 반면, 서양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분류를 하며 접근한다고 한다.

아주 쉬운 예로는 엄청나게 엉킨 실타래를 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실타래를 느슨하게 들고 마구 흔들어 대면 점점 엉킨 덩어리가 풀려지던 기억이 난다.

다른 방법은 풀어진 시작이나 끝을 찾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도 가능한데, 이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략적으로, 대학교의 교재나 자료들은 서양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네 동양식과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어 익숙하지 않게 다가오는 듯하다. 더불어 공부와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복습과 예습, 어느 것이 중요한 가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시험을 위해 공부를 해야 하고, 해왔기에 효율적인 학습법은 복습일 것이다.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수업 시간에 질문이나 의문을 유두하기 어렵다.

그런데 예습은 나름의 이해를 하고 수업을 듣게 되기에, 수업시간이 복습이 되고 자신이 이해를 잘못 또는 다르게 한 경우가 있을 경우 질문으로 이어지고, 토론으로 이어지는 수업이 가능할 수 있다. 신입생 그리고 아직 학교생활에 재미를 느끼지 못한 학생들에게 대학교는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기에 오프, 온라인 이용을 늘려보자. 더불어 수업 내용의 서양식 논리를 알고 예습으로 내 방식의 이해를 시도하고 수업시간에 공유하는 시도를 해보면 조금 더 흥미로운 대학생활이 될 듯하다.

동문칼럼

오래돼버린 ‘섬표’와 ‘백지’의 기억



이정원
이어도연구회 연구원
언론홍보학과 98학번

“
섬표와 백지를 즐길
낭만과 시간을 허락하라
꼭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허무한 것도 없다
”

제주대신문사 기자를 할 때 불운한(?) 상상을 한 적이 있다. ‘만약 신문 1면에 글이 하나도 없이, 제목 한 줄만 들어가면 어떨까.’ 특 하면 밤을 새는 설없는 신문제작 작업에 한말이 나서일까. 반복되는 신문작업에 지치다 못해 세상을 초월하는 환각상태의 몽통함에 빠져서 그랬을까.

당시에는 쓸데없는 공상이라 여긴 하찮은 문장은 어느덧 그 지위와 의미가 달라졌다. 언젠가 현실로 보고 싶어졌다. 상상 속 그림이 현실로 성사됐을 때, 과연 독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무척 궁금해졌다. 그러는 사이 내가 바랐던 현실이 해외에서 먼저 목격됐다.

지난해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스포츠면의 일부 지면을 백지로 발행해 놀라움을 샀다. 지면에는 오직 ‘그리고 현역자는... (And the Inductees Are...)’ 라는 커다란 제목만이 있었다. 2013년 메이저리그에서 명예의 전당 입회자가 탄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뉴욕타임스가 시도한 과격적인 지면 편집이다.

사실 ‘백지신문’은 한국에서 이미 오래된 기억이다. 1974년 겨울부터 시작된 <동아일보>의 ‘백지광고 사태’가 당장 떠오른다. 유신정권은 1974

년 12월 중순부터 기업들에게 압력을 넣어 <동아일보>에 광고를 신지 않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정권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동아일보사 기자들은 12월25일 긴급 기자총회를 열어 ‘광고 철회 경위를 신문과 방송에 자세히 보도할 것, 광고 공간은 백지 그대로 제작할 것’을 건의했다. 그렇게 백지광고가 나가자마자 온 국민의 격려 광고가 봇물처럼 밀려왔다.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는 한국 기자들의 저항역사 첫 페이지에 기록될 만한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동아일보가 독자들에게 전한 ‘백지’, ‘여백’의 충격은 우리가 세상과 사물을 보는 관점,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한다.

상대에게 내 꿈과 진심을 전한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방법이 좋을까. 지면을 꽉꽉 채워야 내 마음이 제대로 보일까. 상대와 소통이 어렵다고 한다. 젊은 친구들이 세상과 사람에 대해 냉소적이라는 걱정이 물결을 이룬다. 이를 해결한다고 갖가지 소통의 노하우를 지면에 콕콕 채운 서적들이 쏟아진다. TV를 틀면 전문가들의 조언과 말들이 넘친다. 인터넷에서 ‘소통’과 ‘젊은 세대’만 검색해도

눈이 어지러울 만큼 각양각색의 정보가 쏟아져 내린다. 어른들의 진심이나 귀기울여 들어라고 할지 모르나, 이 정도되면 아무리 내내심 좋은 친구라 하더라도 세상과 사람들이 질릴 것이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지면을 꽉 채운 교과서와 문제집을 달고 살았는데, 정제되지 않고 쏟아지는 ‘꼭 찬조인’들에 또 내 마음과 삶을 맡겨야 한다나. 세상을 향해 ‘썅소’를 날리는 것이 당연할지 모른다.

어느 순간 ‘섬표’와 ‘백지’의 가치와 재미를 잃어버린 것 같다. 사랑이나 진심이나 희망이나 꿈을 섬표와 백지로 표현 못할 이유가 있을까. 진심 어린 고백 뒤에 이어진 몇 초 가량의 짧고도 영원 같은 침묵의 공기가, 못다 쓴 편지 뒤에 남겨진 여백이, 한 문장을 쓰기 위해 몇 시간 고민을 거듭하는 치열한 섬표가, 어쩌면 진정 삶을 위로하고 살아갈 의지를 주는 낭만이자 힘일 것이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섬표와 백지를 즐길 낭만과 시간을 허락하자. 평생을 무언가 꼭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허무한 일도 없다.

기름은 꼭 채워야 하는 의무를 과감히 벗고, 자신에게 백지와 섬표를 선물하는 여유도 가졌으면 좋겠다.

독자기고

알권리 내세워 사생활 침해 없어야



박재명
사학과2

지난 3월 6일, 밤새 TV앞을 떠나지 못하게 했던 소치 동계올림픽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런데 그 날, 피겨선수 김연아의 은메달보다 더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바로 김연아 선수의 열애설 기사다. 이미 온 국민의 사랑 받는 만인의 연인 김연아가 강원중 아이스하키 선수와 열애를 하고 있었다는 기사였다.

기사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연아 측은 4년째 열애 중임을 순순히 인정했다. 이에 ‘김연아가 아깝다.’, ‘안 어울린다’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오래 사귀었으면 좋겠다’, ‘예쁘게 사귀었으면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한 매체의 취재 방식이다. 인터넷신문 ‘디스패치’는 김연아의 열애설을 담기 위해 하루 종일 김연아를 따라 다녔다고 한다. 매번 연예인의 열애사실을 취재하고 기사화 하던 디스패치의 취재 방식은 항상 문제가 됐으나, 실제로 열애설 당사자가 법적 대응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보도 대상이 세계적 피겨선수 김연아라는 것도 사회적 논란이 됐다. 김연아의 경우 공인이 아닌 세계적인 운동선수인 셀러브리티(유명인물)일 뿐이다. 또한 공인이라 해도 공적 부분이 아닌 사생활을 취재하기 위해 김연아 선수의 사생활을 밀착취재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반론 입장도 있다.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사람들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으로 그 자리가 지 왔다. 그것들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도 하다.

그렇기에 대중이 궁금해 하는 것들은 언론이 기사화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나는 이 사례를 보고 교양과목 ‘언론과 사회’에서 배운 프라이버시권과 알권리의 충돌이 생각났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보도 대상의 사생활, 프라이버시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인터넷신문 디스패치의 입장보다 김연아 선수의 입장이 더욱 이해가 된다. 디스패치는 근 6개월 간 김연아 선수의 생활을 소리 없이 몰래 지켜봐오고 감시한 것은 물론, 김연아 본인의 입장을 들어보기도 전에 기사화해 버린 것이다.

명명연에게도 사생활은 있어야 한다. 항상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잠시 숨을 쉴 공간은 필요하다. 사생활 없이 항상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삶은 정말 ‘나의 삶’ 일까, ‘대중들의 삶’ 일까? 또한 대중의 알권리에 대한 내 생각도 디스패치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알 권리란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관한 이념과 속사정을 언론이 날날이 파헤쳐 국민들이 팩트를 알아야 한다는 명제이지, 다른 사람의 사생활과 삶에 대한 알권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나 역시 디스패치에 ‘김연아 열애’라는 기사가 올라오자 그것을 클릭하고 김연아의 열애소식에 놀라워했다. 이처럼 인간의 궁금증은 끝이 없다. 김연아의 팬으로서 항상 김연아가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연애는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이 김연아에게는 큰 부담일 것이다. 진정한 언론은 대중들의 입맛만 생각하는 기사를 쓰기 보단 보도대상의 윤리적 부분까지 생각해 줘야 한다.



정현
언론홍보학과1

얼마전 들었던 은행에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지어 서있는 것을 봤다. 그들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온 것이었다. 대부분은 카드 재발급만 받고 가 되, 돌아서서 직원들에게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 역시 금융권 정보유출의 피해자로서 화를 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내 통장에 돈도 없는데 뭘’하는 생각에 쉽고 가볍게 넘기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새학기가 된 지 얼마 안 돼 또 통신사의 정보유출이 발생했다. KT에 이어 타 회사인 SKT와 LG유플러스까지 유출됐다. 최근 들어 핸드폰에 스팸메시지가 자주 오곤 했다. 이 문제가 정보유출 때문이라 생각하니 무척 화가났다. 그러나 더 이해가 안갔던 점은 정보유출 피해를 확인하러 들어간 통신사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요구였다. 한 번 신화를 잃은 회사가 개인정보를 또 다시 요구한다는 점에 기가 막혔다.

나는 개인정보로 가입한 포털 사이트가 10군데가 넘는다. 또한 휴대폰을 사용하며 보험도 가입한 상태다. 내 정보는 이미 많은 기업에 팔려진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개인정보 유출이란 사태가 공공연하게 벌어진다면 내 정보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는 늘어가는데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아무도 무한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보를 유출시킨 기업은 죄송하다고 고개만 숙이고 있다.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에 사과문을 적어냈다고 문

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어떠한 피해구제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엔 기업은 이러한 사태를 안일하게 넘어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 외국에서는 기업에서 정보를 빼돌리거나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 정지는 기본이고,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라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개인정보를 그만큼 국가기관이 소중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고 자랑하면서 도 여전히 개인정보가 일부 개인이나 해킹에 의해 빼돌려져도 ‘숨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런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리는 종종 어떤 사이트를 가입하거나 통장을 만들 때에 항상 보는 것이 있다.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나와 있는 조항들은 읽어도 어렵고 이해도 잘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넘겨 버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더욱 못마땅한 것은 이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해야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셈이다. 아직까지도 정보수집 동의 의무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가입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우리에게서는 개인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 마땅히 알 권리가 있다.

기업은 정보를 수집할 때에 목적과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정부는 유출된 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미 주민등록번호는 우리의 개인정보로서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는 편리한 세상에 사는 만큼 위험요소도 항상 뒤따르는 세상에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 정보는 나를 대표하는 재산이자 웃이다. 그런 소중한 것을 남에게 그냥 줘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은가. 정부와 기업의 훌륭한 대처를 기대한다.

권하고 싶은 책

여성, 일 그리고 리더를 향한 의지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린인 (Women, work, and the will to lead: lean in)을 소개하려고 한다.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인 셰릴 샌드버그는 이 책에서 여성의 삶과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며,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위험을 감수하라고 말한다. 그녀 또한 일과 사생활, 가족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위해 노력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개인적으로 책속의 많은 문장들이 공감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또 나 자신을 돌아 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대학들의 여학생 비율도 절반을 넘어섰지만 막상 사회에 나가보면 정부나 산업계를 주도하는 리더들은 대부분 남성들임을 알게 된다.

절반이 넘었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대부분이 가정을 이루면서 사회생활과 육아의 병행이 버거워 한쪽의 끈을 놓아버리는 경우일 것이라 생각된다.

여성은 어린 나이부터 직업적 성공 혹은 좋은 어머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접하면서 자라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결혼과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결혼을 선택하는 여자대학생의 수는 남자대학생의 2배에 가깝다고 한다. 사회에 나가서도 여성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안정적인 가정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결정들을 수차례 내리게 된다.

육아를 위해 경력을 포기한 여성은 흔하게 들었으나, 육아를 위해 경력을 포기하는 남성은 아주 드물다. 물론 개개인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을 사랑하는 부모’ 라면 협력과 조화, 현명한 결정들을 통해서 본인이 사랑하는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키라고 샌드버그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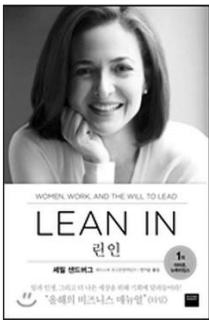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나라 젊은 층의 결혼적령기는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시기가 다를 뿐 각자의 인생계획 어느 부분에는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성에게 또 남성에게 서로의 경력을 전적으로 지지해주는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 진심으로 중요하다. 실제로 성공한 기업의 CEO로 활동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이 (28명 중 26명) 남편의 외조를 성공의 중요 요인으로 꼽았다.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으며, 풀타임 직업을 두 개 가진 사람은 없다.

나 스스로도 여러 가지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굴레들 때문에 내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포기는 하지 않을 생각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미래의 큰 꿈을 가지고 각자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샌드버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을 정말 그만두기 전에 미리 그만두지 말라’고.

이윤정 식품영양학과 교수



셰릴 샌드버그 지음
『Lean in (린 인)』
와이즈베리 펴냄

학생들 학자금 이자 부담 덜어주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하길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매년 6월말과 12월 말 기준 제주자치도내에 주민등록 내 대학 재학생이다. 일반학자금 대출 대상자 중 저리·2.2%를 지원한다. 저금리 학자금 대출 대상자에 대하여는 본인부담액의 50%를 지원해 많은 학생들이 이자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4736명, 3억1288만2000원을 지원했고, 2013년에는 4847명, 1억9090만7000원을 지원했다. 일반학자금 대출자는 대출상환계좌를 통해서, 돈돈학자금 대출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등 돈돈학자금 중도상환 내역을 통해서 본인이 받는 대출이자 지원내역을 볼 수 있다.

2014년도부터 달라지는 사항이 있어 학생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지금까지 제주자치도는 대학생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대출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이자 일괄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따라 각 자치단체가 대학생 개인의 대출이자 지원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고, 그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송부해야만 대출이자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14년 1학기부터는 도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대출이자 지원 신청해야 한다. 대출이자 신청기간은 '14년 7월 1일부터 1개월간이며, 제주자치도는 대학생들의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상반기 내에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외로 주소를 이전한 대학생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대학생들에게 교육비 부담 해소 및 고등교육기관에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많은 대학생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허문정
제주대 대학원담당

>> 아라해외봉사단 베트남 해외봉사캠프 취재기 <1>

해외봉사단 50명 의료지원·예체능 교육 등 사랑 나눔 실천

태풍 피해지역 광찌성에서 봉사활동 펼쳐

베트남 전쟁 35년 흘렸지만 상흔 그대로

제주대학교 아라해외봉사단(단장 김성업)은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베트남 광찌성에서 태풍피해 주민들의 의료지원과 교육봉사를 위해 2014 동계 베트남 해외봉사캠프를 진행했다.

캠프가 열린 베트남 광찌성 여린현은 2012년부터 글로벌 보건의로 NGO 메디피스가 KOICA의 지원으로 고엽제 피해아동 재활치료를 진행하는 곳이다.

50명의 해외봉사단원들은 베트남 해외봉사캠프 동안 광찌성 내 주요 태풍피해지역인 해안가 주민 대상으로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치과 등 5개 부문 의료지원을 통해 1000여명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줬다. 또한 의료서비스 외에도 이 지역의 '여하이 초등학교'와 '호아마이 유치원'을 방문해 예체능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200여명의 여린현 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 국제경험 확대와 자기계발 기회가 됐고, 세계시민의식과 국제적 감각을 갖추는 계기가 됐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제주대신문은 아라해외봉사단원들의 8일간의 활약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북쪽은 중국, 서쪽은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접하고 동쪽은 바다를 면하고 있는 베트남은 꾸준한 관광명소로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2014 동계 베트남 해외봉사캠프가 펼쳐진 베트남 중부지역 광찌성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초까지 태풍 우딕(wutip)과 10월 15일 태풍 나리(nari)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사회간접시설과 공공교육시설, 농작물 등의 큰 피해가 있었다.

특히 이 지역은 과거 베트남전 당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의 군사분계선이 있었던 지역으로 베트남 내에서 가장 생활이 어려운 곳이기도 하다. 광찌성은 메콩강이 흐르는 남부, 홍강이 흐르는 북부와 달리 사막이 많고 우기에 태풍이 많아 해 태풍피해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비교적 먹거리가 풍부한 베트남 사정과는 달리 식량이 부족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빈목터널

거대한 운석이라도 떨어진 듯 음푹푹인 구멍이와 훑몰스럽게 남은 폐허들. 빈목지역(Dia Dao Vinh Moc)의 첫 인상은 참혹 그 자체였다. 시간은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는 말이 있지만, 이 지역 주민들의 아픔과 선명하게 남은 전쟁의 흔적은 치유하지 못하였음을 느꼈다.

'Free Fire Zone'. 문자 그대로 무제한 폭격 지역으로 명명됐던 빈목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폭격을 받은 장소이다. 베트남 전쟁 당시 약 9000만톤에 달하는 미군의 폭격이 있었다. 당시 빈목지역 인구는 1천명이 채 안됐다고 한다. 이에 빈목지역 주민들은 폭탄을 피하기 위해 땅굴을 팠다. 전쟁이 길어짐에 주민들은 서로의 굴을 연결하기 시작했고, 약 3Km 규모의 '빈목터널'을 완성한다. 전쟁 당시 빈목터널에서 태어난 위엔 반 리(42세)씨는 안내를 통해 터널을 들어갈 수 있었다. 터널은 한 사람이 들어가기도 비좁았다. 위엔 반 리 씨의 키는 150cm가 채 되지 않았고, 좁디좁은 공간을 성큼성큼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옛 주민들의 전쟁당시 모습을 어렵잖아 알 수 있었다.

터널은 지하 1층의 깊이가 13m, 2층이 15m, 3층이 약 23m로 매우 깊게 지어졌다. 또한 빈목지역의 지질은 점성이 강한 특성을 띄는 점토여서 미군의 폭격에도 끄떡없었다. 주민들은 1965년 터널을 판 이후 8년 동안 미군을 피해 굴에서 생활했다. 터널 내부에는 각 가구의 독립된 공간과 우물, 병원, 창고, 탄약고 등이 있으며 작은 규모의 광장도 존재한다. 약 600명이 전쟁기간동안 굴에서 생활했고 이들은 신속한 대피를 위해 산을 향한 입구 6개와 바다로 통하는 입구 7개를 만들었다. 심지어 굴속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다. 20여명의 아이들이 굴 내부에서 태어났으며 전쟁의 아픔 속에서 주민들에게 잠시나마 기쁨을 안겨줬다. 이들은 현재도 빈목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DMZ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가 38선으로 나뉘었듯이, 베트남도 분단의 아픔을 피해가지 못했다. 베트남은 제네바 협정에 의해 1954년에 남북으로 분열됐다. 이후 북위 17도 부근의 벤하이 강 연변에 군사 경계선이 그려졌다. 이 경계선을 따라 폭 10Km, 길이 60Km에 걸쳐 설치된 것이 바로 DMZ(비무장지대)이다. 당시 전투에 사용됐던 헬기와 탱크 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현장은 미군과 베트남군이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벌였을까 하는 느낌을 줬다.

베트남 전쟁시에는 벤하이 강 부근을 둘러보면 두 개의 거대한 깃발탑이 서로 마주



베트남 광찌성 여린현 시내에서 근로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사진 위). 베트남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빈목터널(아래 왼쪽)과 깃발탑터(아래 오른쪽).

보고 있는 진기한 풍경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전쟁당시 남쪽지역이 깃발탑의 높이를 올리면 북쪽지역은 탑의 전망대와 그 규모를 확장하는 등 서로의 기싸움으로 변질된 장소다. 현재는 남쪽에 터널 남아있어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베트남 국민들은 더 이상의 분단은 없길 바라는 의미에서 터를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탐에 이어 남북의 분단을 상징하는 장소는 바로 DMZ부근의 '하옌롱 다리'이다. 국경을 가른 벤하이 강에 놓인 길이 183.8m, 폭 3.26m의 다리로 1967년 북쪽은 붉은색, 남쪽은 노란색으로 도색했다. 이 다리 중간 지점에는 빨간 점이 찍혀있는데, 과거 남북 베트남이 갈라져 있던 경계선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훼(Hue)지역

훼 지역은 베트남을 최초로 통일한 응웬 왕조의 수도였던 곳이다. 하지만 훼는 지역적 특성상 방어에 무적 유리했던 터라 전쟁의 요충지가 됐다. 이로 인해 북 베트남에게 점령을 당했고 이후에는 미군의 폭격으로 몸살을 앓았다.

훼 지역은 호영강을 사이에 두고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뉘어 있다. 수년간의 전

쟁에도 불구하고, 성벽으로 둘러싸인 구시가지는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구시가지는 1993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1995년 하노이 시는 훼를 하노이, 호치민 지역과 등급의 위치를 부여했다. 훼가 수세기 동안 베트남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임을 인정한 것이다.

◇황궁과 티엔무사원

훼의 황궁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응오몬 문 앞에는 팔찌는 깃발탑이 보인다. 이는 1986년 북부 베트남 공산당이 훼를 24일간 점령하면서 만들었던 것이라고 한다. 훼 지역의 내부에 위치한 황궁은 성벽의 길이가 무려 10Km에 달하며 10개의 문이 외벽을 형성하고 있다. 구시가지의 성벽은 응웬 왕조 최초의 황제인 자롱 황제 재위 때인 1804년에 건설이 시작돼 1833년에 완공됐다.

티엔무사원은 하케언터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응우옌 왕조는 티엔무사원을 국가 사찰로 정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그 규모를 늘려나갔다. 그러나 1904년 태풍으로 인해 크게 파손됐고, 1907년부터 지속적으로 재건을 하고 있다. 봉사단은 지역을 돌아보며 베트남의 역사와 전쟁의 아픔을 배웠다.

강수빈 기자

>> 베트남 의료봉사 체험기

“해외봉사의 의미 되새긴 시간”

20년 전에 필리핀 레가스비 지역에 봉사를 갔던 적이 있었다. TV에서만 보던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을 직접 보고 느낀 점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너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왔으며 내가 가진 것을 조금만 나눠도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내가 가진 기술과 재능을 파키스탄 지진 구호 현장에 쏟아 부으면서 온전히 내 인생을 걸지는 못하더라도 약간의나마 나눌 수 있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였다.

허창진 총장님과 여러 교수님들 덕분에 봉사활동에 뛰어날 수 있었고, 아라해외봉사단이 발족할 수 있었다. 2014 동계 해외봉사캠프가 베트남으로 정해졌음을 듣고서 처음 가보는 공산국가라는 점에서 새로운 긴장과 흥분을 일으켰다. 오래 전 그들에게는 독립전쟁이었을 수도 있는 그 전쟁에서 한국 군인들이 희생을 당한 베트남이었기에 약간의 두려움마저 들었다. 우리가 일본인에게 가지는 감정처럼 혹시 한국인들에게 안 좋은 감정이 남아 있으면 어쩌나하는 우려도 있었다.

그리 길지 않은 4시간 30분의 비행여정 끝에 차가운 베트남 밤공기를 배부르게 속히 들어 마시며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숙소에서 첫 밤을 지내고 목격지인 광찌성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역주행을 오가는 일차선 도로 위 버스에서 보는 베트남 풍경은 죽은 자를 위한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집집마다 있는 조상을 모시는 사당과 화려한 무덤들이었다. 집은 회칠마저도 없는 블록으로 지어 살면서도 사당과 무덤은 형형색색 화려한 것은 왜일까? 팍팍한 현실 속에서 도피처로 삼은 건 아닌지 궁금했다.

도착한 학교에는 예쁜 색색의 화려한 천으로 천막을 쳐놓았고 얇은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들은 슬리퍼를 신고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고 있었다. 봉사단을 위해 한 쪽 교실을 비워준 덕분에 외과, 내과, 소아과, 약국을 널찍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 이제 이곳에서 일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한국어와 학생들의 열심어린 통역은 아이 손을 잡고 방문한 엄마의 간절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풀어주었다.

우리나라처럼 의사를 쉽게 보지 못하도 혈압 환자도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들이 방치된 환자들이 있었다. 충분하지 못한



강영준 의학과 교수

영양 덕에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2살은 작아 보이는 베트남 아이들을 진료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부족한 것 없이 풍요로움에 쌓여있는 내 자녀를 떠올리며 이 아이들을 바라보니 마음 한 구석에 죄책감마저 든다. 거친 손마디와 왜소한 체구를 지닌 노인을 보며 혹시 이 분들이 고엽제의 희생자는 아닌지, 전쟁을 거치며 가족을 잃은 가슴 아픈 사연을 묻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해졌다.

처음 의료봉사에 따라 나와 어색해하던 학생들도 점차로 손이 맞아지며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 약을 정리하고, 조제한 약을 분류하고, 현지인들과 베트남어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며 봉사의 의미를 되찾았다.

처음 봉사를 나섰던 20년 전에는 내가 더 많이 가진 자로서의 우월감 속에 시혜를 베풀다는 생각으로 임했으나, 티 없이 맑은 이곳 아이들의 눈동자와 행복한 웃음소리를 듣다보면 내가 과연 무슨 자격으로 이들보다 낫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의문이 든다. 아프지 않더라도 약을, 기념품을 얻기 위해 몰려든 손을 채워주면서 나의 봉사가 과연 이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고민이 된다.

한때 우리나라 또한 타국의 원조에 목매이던 때가 있었다. 미군을 쫓아다니며 초콜릿과 분유를 얻고자 노심초사하던 세대가 그리 멀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바꾼 것은 초콜릿도 분유도 아니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한 삶을 살지만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기준을 강요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도움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부응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이 깊어간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개방형 정보통신융합과정(ICT) 선도대학 제주대 OIC 사업단에서 제주대학생 여러분을 특강에 초대합니다.

이노베이션 특강

✕ 신청대상: 모든 학생
✕ 학 점: 3학점
✕ 강 의: 매주 금 6, 7, 8교시
✕ 강의평가: Pass or Fail

매주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주요 대학 교수님 및 각분야 대표와 혁신전문가를 초청하여, 블루오션을 열어나가는 혁신에 관한 생동감 있는 현장 특강을 진행합니다.

강사진
손 욱 ((前)농심회장, 삼성종합기술연구원 원장, 혁신전문가)
프레다 국제전문컨설팅연맹(BPW) 세계회장
안중호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윤대승 참좋은 여행 CEO
홍성욱 서울대 생명공학과 교수
임안순 회장(제주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고제량 여행기획가(전제주생태관광대표)
제주도 혁신기업 특강: 제주관광공사/백슨/다음
스마트 IT 전문가
발명특허 전문가 등

미래창조과학부 “개방형 ICT 융합과정” 관광융합소프트웨어 복수전공 과정 안내



신청대상

- 제주대학교 모든 학과(2014년도 기준 2, 3학년)
- 신청 학생 중 선발절차에 따라 선정된 학생

복수전공 로드맵

본 전공영역 42~57학점 + 관광융합S/W 42학점 + 교양과목 기타교과목

130학점

본인전공 학사학위 + 관광융합소프트웨어 전공 학사학위 취득
취업연계(C&D Project, 인턴십)

문의 제주대 OIC사업단
대표전화 064)754-8351
oic.jejunu.ac.kr

복수전공과정 특전

- 본 전공 + 관광소프트웨어 전공 복수학위 취득
- 복수전공과정 우수자에 대한 학사 지원비 지급 (기존 장학금 수혜 가능)
- 복수전공과정 이수자에 대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전문특강, 취업세미나, 1:1 멘토링 지원
- 산업체 연계 C&D 프로젝트 수행
- 자격 취득자에 대한 비용 지원
- 각종 경진대회 참가비용 지원

졸업후 진로

다학제간 융합, 대학-기업간 융합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단순 한정된 인재보다는 미래 S/W 산업 분야의 핵심 인력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진로를 다양화 할 수 있음.

1 지역 S/W 업체 및 관광 관련 분야 취업 가능

2 국내 및 외국기업의 S/W 관련 분야 취업

3 국내 및 외국에서 S/W 관련기업 창업 관련 분야 대학원 진학